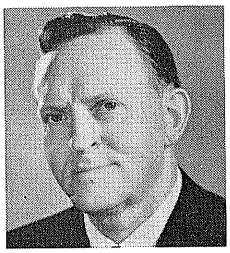
교회의 제10대 대관장으로 죠셉 필딩 스미스 장로가 성임되었다. 그는 제1보좌에 헤롤드 비. 리 제2보좌에 엔. 엘돈 테너 장로를 선택하셨다. —관계기사 본문 1 페이지

성도의벗 3
1970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3월 1일
(통권 제56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영 감 의 멧 세 지

알빈 알. 다이어

십이 사도 보조

멀지 않은 장래에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사태와 시대적인 조류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 봅니다. 이제까지 인기있는 세상적인 일로 넋을 잃어버리는 만일을 추구했던 대신 올바른 윤리 의식과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에 인용하는 시는 이러한 시대적인 동향을 암시하고 있읍니다.

"무엇이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며 양심의 온화함을 해치며, 무엇이 우리의 신에 대한 인식을 몽롱하게 하며, 영적인 일을 돌아보지 않게 하는 그 모두가 …비단 겉으로는 하나의 해가 없을지라도

아무리 시대의 요구가 육체를 정신보다 상위에 두는 사조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죄가 되나니 (스잔나 웨슬리 : 18세기 영국의 종교 개혁자 죤 웨슬리의 모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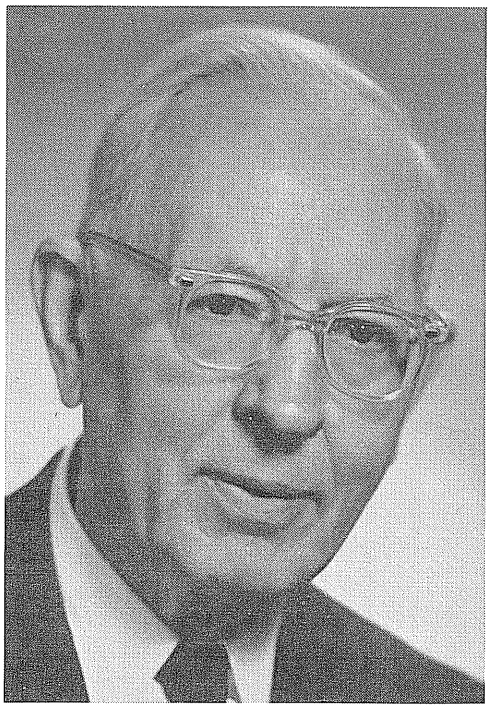
진정한 인간의 의미와 그 목적은 성욕이나 욕구 이상으로 보다 차원이 높은 심원한 힘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있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귀의 하여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지킬 때 일수록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바로 이러한 감정에서 인간은 생물학적인 개념과 같이 언젠가는 존재가 사라지는 가변의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라는 신앙과 확신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면 어두움을 초월하여 이기는 빛의 균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6 권 제 3 호 **순 서** 1970년 3월호

□ 새로운 대관장단 □……1
□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생애의 중요 약력 □ ……5
기독교적 사랑 죤 더블유. 벤욘……6
자세와기능 죠지 알버트 스미스 이세 ……8
주님의 집 ……10
진리의 말씀 : 최대로 이용하자 리차드 엘. 이반스……11
돌이킴의 시작 사무엘 엘. 홈스 ……12
계보 : 위대한 동등자데이비드 에이치. 프랫
□ 어린이 성도의 벗 □
아무도 못 찾는 곳 루실 씨. 리딩……15
요술쟁이 물건 죠지 디. 듀런트 ……16
□ 관리 감독의 말씀 □ : 저들의 지부장 죤에이치 · 반덴버그……18
경전에 담긴 즐거움 엘린 캐논……20
간증 : 휴 비. 부라운 ……21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나 토마스 에스. 몬슨…25
□선교부장 멧세지 : 영생으로의 우정 선교부장 서 현보 ……29
□지방부장 멧세지 : 주 예수의 기쁨 남부지방부장 배 영천……30
□ 내외 소식□……31
진리의 말씀 : 리차드 엘. 이반스……뒷표지

표지 설명 : 교회의 제10대 대관장으로 죠셉 필딩 스미스 장로가 성임되셨읍니다. 지난 1월 23일 고 데이비드 오. 멕케이 장로님의 후임으로 선택되신 그는 오는 7월 19일로 94세가 되시며 교회의 많은 역원직을 통해서 대관장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읍니다. 그는 제6대 대관장이셨던 죠셉 에프. 스미스 장로님의 아들로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형 하이람 스미스의 손자가 되십니다. 관련 기사는 1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실었읍니다.

상 : 대관장단의 제1보좌인 헤롤드 비. 리 형제



중앙 : 교회의 예언자이며 대관장인 죠셉 필딩 스미스 형제

우 :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제2보좌로는 나단 엘돈 테너 형제가 임명되었다.

새로운 대관장단

● 수많은 말일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던 고 데이비드 오. 멕케이 대관장의 장례식이 엄숙히 거행된 뒤 1970년 1월 23일 그분의 후임으로 새로운 주님의 예언자이신 교회의 대관장이 선택되셨다.

새 예언자는 바로 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시던 죠셉 필딩 스미스 사도이시며 올해 93세로서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면서 교회의 최고 높은 직책을 감당할 준비를 몸소 닦으셨던 분이시다. 우리는 모두 이 덕망이 높은 주님의 종 앞에서 놀라움과 경의를 금치 못하며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며 이 분은 교회의 최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셨고 다년간 총관리 역원으로도 헌신하셨으며 또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수천 수만 마일을 여행하신 일이 있는가 하면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는 아무도 따를 자가 없으시고 이 분이 하신 복음의 설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으며 저술한 책이 많다거나 집필한 논문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보다는 중심을 잃고 방황하거나 타협이나 흔들리는 일이 없이 단호하고 의연한 자세로 주님과 그의 교회에 바치신 헌신과 봉사가 지대하므로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서 경외하며 겸손해지는 것이다.

신임 대관장의 제일 보좌에 헤롤드 비. 리, 제이 보좌로는 나단 엘돈 태너 형제가 각기 택함을 받고 임명되었다.

헤롤드 비. 리 부대관장은 1899년 3월 28일 아이다호주 클리프톤에서 부친 사뮤엘 엠. 리씨와 모친 루이사 브리감 리 여사의 아들로 태어나 형들과 여동생과 함께 농장에서 성장했다. 그는 1920년 미국 서부 선교부의 부름을 받을 당시 아이다호주 옥스포드에서 교장을 역임했으며 1923년 페른 루신다 태너양과 결혼하여 슬하에 2녀를 가진 가장이 되었다. 그 후 부인의 사망으로 1963년 프리다 죤 젠슨 여사와 재혼하였다.

1932년 쏠트 레이크시 지방 행정관으로 지명을 받은 뒤 그 직책에 선출되어 재직하면서 교회에도 충실히 봉사하였고 1930년에는 파이어니어 스테이크 부장의 부름을 받아 그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그 당시 교회로서 시범 프로그램이 되는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명실공히 개척 스테이크를 인도하였으며 이로서 대관장단은 그에게 교회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관리자로 중임을 맡겼다. 이 직책을 수행하던 중 1941년 4월 십이사도회의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서 그는 위대한 지도력과 힘을 발휘했으며 항상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 왔다.

리 부대관장으로 말하면 오랫 동안 강직하고 충실한 젊은이의 대변자요 그들의 기수로 알려지고 있는 분이다.

새 대관장단의 제이 보좌로 택함을 받은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캐나다의 밀 생산지에 있는 말일성도 이민단 출신으로서 그의 양친 나단 윌리암과 사라 에드나 브라운 태너 여사는 포장 마차로 캐나다까지 신혼 여행을 가셨던 분이다. 거기서 그의 부모는 자기들 소유의 말을 팔아 식품상점을 차렸고 한편 그의 어머니는 1898년 5월 9일 첫아기 나단 엘돈을 낳기 위해 한 동안 쏠트 레이크시에 되돌아 가 있었다.

엘돈 부대관장은 목장과 농장생활 속에서 성장하면서 때로는 소를 몰며 밭을 갈기도 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교육을 받을 기회와 환경이 그에게는 충

분하지 못했다.

1919년 12월 20일 태너 부대관장은 사라 이사벨 메릴양과 결혼하여 슬하에 5녀를 두고 있다.

그는 1960년 10월 총회에서 십이사도 보조에 임명을 받고 곧 이어 서부 유럽 선교부를 관리할 책임을 맡았었다. 드디어 1962년 10월 대회에서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지지를 받고 다음 해 10월 데이비드 오. 멕케이 전 대관장의 제이 보좌로 선택되었다.

태너 부대관장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은 그의 개인 생활에 지표가 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고 주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영생과 구원의 계획을 주신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7월 19일이면 94세가 되시며 지금까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신 사도 가운데 최고 연장자이시며 고 데이비드 오. 멕케이 전 대관장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년 후인 1910년 4월 7일 사도에 성임되어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성별된 이래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에 봉사하는 어느 지도자 보다 오랫 동안 사도로서 헌신하신 분이시다. 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과 대관장단의 보좌를 동시에 역임하신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다.

죠셉 필딩이라는 갓난 아기가 1876년 쏠트 레이크시 어느 개척자의 가정에서 출생했을 당시 쏠트 레이크 계곡에 성도들이 이주해 살은지는 겨우 29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그 때도 교회는 브리감 영 대관장이 인도하고 계시던 때였다. 이때야말로 어려운 고난의 시기여서 어린 죠셉 필딩은 일찍부터 가난에 익숙해 졌고 연구심을 길렀으며 인내를 배웠고 형제들과 더불어 테이로스빌 농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가운데 고된 일을 감당하여 완성하는 수련을 하며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배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쥴단강 부근에서 젖소를 먹이기도 했고 누구보다 공부를 하려고 무한히 노력했다. 그의 부친은 이 고난의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나와 우리 온 식구는 갖은 고초를 겪으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같이 지키려고 온갖 애를 다 썼지만 살림살이는 쪼들려 형편이 없었고 그런데다 성탄절이 다가 왔다. 성탄절 바로 전날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집을 나서며 무언가 자식들에게 뜻있는 선물을 하나 해 주고 싶었다. 그들에게 기쁜 선물을 안겨 주어 성탄절을 특별한 날로 기념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도 없었던 것이다. 기운없이 번화가로 터벅거리며 걸으면서 이 상점 저 상점 진열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아뮤센의 보석상도 기웃거리고 진열장이란 진열장은 죄다 기웃거리고 나서 사람들이 붐비는 상가를 빠져 나와 풀석 주저 앉아 그만 어린 아이처럼 응응 울어버리고 말았다. 목메이도록 복받치는 서름이 나의 아픈 마음을 달랠 때까지 흐느끼다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손에는 집에서 나올 때처럼 빈 손으로서…"

그러나 역경은 훌륭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은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 또한 스미스 일가는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하는 훌륭한 가풍과 고결함과 헌신과 신앙을 갖고 있었다. 스미스 대관장 부친 죠셉 에프. 스미스는 카테지 감옥에서 함께 순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형 하이람 스미스의 아들이 된다. 그 부친은 이제 겨우 여덟살 난 연약한 소년으로 미시시피 강뚝 서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몬트로스에서 미조리강까지 소떼를 몰고 간 일이 있는가 하면 그 후 이 년이 지난 아홉살 때는 평원을 지나 산을 넘고 수천 마일을 소떼를 몰면서 쏠트 레이크 계곡에 도달한 일도 있다. 슬프게도 부친의 어머니는 그의 나이 13세 때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나서 약관 15세에 두번 째로 화와이 선교부의 부름을 받아 봉사하셨으며 대관장단의 부름을 받기 이전 까지 영국의 두 선교부에서와 유럽 선교부 부장으로 헌신 하셨고 1901년 교회의 대관장이 되셨다. 대관장의 부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이 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일뿐 아니라 복음을 외치던 힘찬 설교가 였으며 더우기 우리에게 진실한 인간에 대한 최고의 개념과 이상의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이시다. 진실로 충성을 다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친구나 원수에 의해서 간섭을 받지 않고 진리에 거룩한 헌신을 바치는 진실한 인간상을 보여 주신 분이시다."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과 그의 아내 제시 에반스 스미스 자매

이 위대하고 덕망이 높은 부친과 더불어 훌륭하고 영적인 어머니의 뒷받침을 바탕으로 어린 죠셉 필딩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간직할 수가 있었다. 이처럼 대관장의 복음의 원리에 대한 기초며 옳고 진실한 모든 것에 대한 기틀은 유년 시절부터 견고하게 다져져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하여 더욱 확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교회에 바친 봉사는 하나의 기념비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다. 그분의 전 생애는 교회 역사를 대변해 주며 교회는 그의 인생의 전부이기도 했다. 복음 선교사로서, 교회 역사 편찬 위원으로서, 계보 협회의 서기나 관리 책임자나 회장으로서, 또는 총본부 임원으로서, 신전장으로서, 훌륭한 서적의 저술가와 편집인으로서, 교육가와 실업가로서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나 대관장단의 보좌로서, 그분은 조금도 지치는 기색도 없이 모든 정력을 쏟아 주님의 사업에 헌신해 오신 분이다.

또한 스미스 대관장의 생애는 포장 마차 시절에서 시작하여 제트 비행기가 날으는 시대를 점철하고 있다. 그분은 교회 총회에서 일백회 이상이나 영적인 말씀을 하셨으며 무려 스테이크 대회에 오천번이나 참석하시기 까지 하셨다. 대관장은 또 아홉 개의 신전 봉납식— 성 조지, 쏠트 레이크, 하와이, 앨버타, 아리조나, 아이다호 폴스, 로스 앤젤리스, 런던과 오클란드 신전들의 봉납식—에 참석하신 경력이 있으시며 수십 개의 선교 지역을 방문하시기도 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4세가 되시는 대관장은 아직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부인 제씨 이반스 스미스 자매님과 아

최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의 리, 스미스, 테너 장로가 그들의 새로운 부름에 관한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담한 아파트의 저택에서 살고 계시며, 여기서 교회 본부 건물까지는 매우 가까워 도보로도 출근하실 수가 있다. 매일 수 많은 집회, 약속, 접견, 지명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한가한 틈이라도 얻기만 하시면 언제나 경전을 연구하시던가 타자를 치시며 원고를 쓰시던가, 아니면 복음 교리 문제의 해답을 작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든 대관장의 측근자들처럼 그분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두고 강직하고 고집이 많아 완고하다고 하지만, 진리라든지 정당한 일이라면 아무 것에도 결코 굴복하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양보나 타협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진리는 진리며, 하나님의 계명은 옆으로 젖혀놓을 수도, 에누리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그의 부친에게 던져진 찬사를 듣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진실로 충성을 다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친구나 원수에 의해서 간섭을 받지 않고 진리에 거룩한 헌신을 바치는 진실한 인간상을 보여 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이르시거나, 계시하신 말씀이나, 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인간이 원한다 해서 인간의 방편대로 변경하든지 수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관장이 가진 신념이시다. 그분은 회복된 복음의 모든 원리를 글자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임에 있어 흔들리거나 망설이지도 아니하시며, 어떠한 의문이나 타협도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여호수와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고 외치신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교회 회원들이 알지 못하는 일면을 지니고 계시며, 이러한 성품과 덕성을 모르고서는 이 위대한 예언자의 참 모습을 오해하기가 쉽다. 여기에 그분이 지닌 훌륭한 인품을 간략히 소개해 보면 이러 하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헌신적인 남편이요, 아버지요, 할아버지이시다. 아들 다섯이 전부 선교부의 부름을 받고 봉사했으며, 모든 자녀가 신전 결혼을 했다. 최근 그분은 자녀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다. "나는 열 한명의 자녀의 부친으로서 오늘날까지 이들 모두가 충실한 교회 회원이며 한결같이 교회에 활동적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모두가 가르친대로 잘 순종 한 것이라 봅니다. 또 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내게 속해 있으며 나의 왕국의 주춧돌이기도 합니다."

그분에 딸린 111명의 후손 중에는 손자 손녀가 각각 29명이나 되며 증손자 손녀는 21명이나 된다. 그중 13명의 증손자가 이미 선교사의 부름을 마쳤으며 증손자 가운데 신전 결혼을 한 수만도 20명이나 된다. 스미스 대관장 일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친숙한 사이로 잘 알고 계시는 리차드 엘. 이반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 가문의 충성과 헌신과 가족들의 정직하고 솔직한,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일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돈독한 신앙을 갖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양친에게 그 치사와 찬사를 돌려야 합니다."

스미스 대관장의 생신이 가까운 토요일은 으레 온 가족들이 즐기는 날로 예정되어 있다. 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맞으면 가족들은 모두 쏠트 레이크시 공원에 모여 놀이도 즐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노래도 부르는가 하면 저녁은 맛있게 요리한 칠면조가 오른 만찬을 회식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날의 행사 중 가장 멋있는 순서는 할아버지 스미스 대관장의 인자하신 충고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아울러 대관장께서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의 생일날에 온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기발한 묘안은 해마다 111회나 되는 생일을 일일이 기억하는 번거러움을 덜어 주고 있다.

그리고 스미스 대관장이 교회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헌신적인 내조를 아끼지 않는 부인 제씨 자매님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으며 부인은 유망한 오페라 가수로서의 전도를 포기하면서 까지 대관장을 받들기로 결단을 내렸으며, 그때 말하기를 죠셉 필딩 스미스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네의 생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했다. 부인의 기민한 재치, 쾌할한 성격, 밝은 성품, 명랑한 웃음은 항상 힘을 돋구어 주었고 많은 압박감과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야기 지명을 맡을 때도 종종 있으며 그네는 노래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기꺼이 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부인은 태버내클 합창단의 독창자이다.—그네 뿐 아니라 스미스 대관장 자신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소유하고 계셔서 제씨 자매님과 나란히 피아노에 닥아 앉아 이중창을 부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이의 기쁨을 감출 수 없다.

또한 스미스 대관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교회 찬송가 네곡의 가사를 작시하셨는데 이것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죠지 디. 파이퍼가 작곡한 그분의 작시 "이 여행 길어도"라는 찬송가는 태버내클 합창단이 불러 전국에 방송되었다.

그분이 작시한 다른 찬송가 "우리는 시온의 탑을 지키는 파수병" 은 알렉산더 슈라이너가 작곡해서 1963년 오클랜드 신전 초석을 놓는 기공식에서 스미스 자매님이 태버내클 합창단과 더불어 독창했던 노래이다.

이 분들의 결혼 생활이야말로 눈에 띄게 사랑과 존경과 조화로 이루어진 행복한 결혼이라 할 수 있으리라. 제씨 자매님은 최근 그네의 남편에 대해 "친절하기 이를데 없고 더없이 사려깊으신 분이예요. 나에게 화를 내신다거나 불결한 말은 절대로 안하신 답니다."고 말했다. 이 말씀에 대해 스미스 대관장이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부인이야말로 내게 언성을 높이는 일은 절대로 안합니다."라고 하셨다.

대관장을 알고 계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그분은 쾌활하고 신선한 유모어를 즐기시는 멋진 분이시다. 스미스 대관장은 부엌 안 벽에다 다음 말이 적힌 장식판을 걸어두게 하셨다. "이 가정에서 남편의 주장이라고 반드시 결정적인 의견은 아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또 그의 부인에게 "우리 가정에는 훌륭한 관리인이 있는데 뭘 그러오."하며 안심 키시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하고 부인은 이 말씀에 대답하기를 "관리인은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답니다. 지난 여름 언젠가 그이의 비서가 휴가 중이라서 제가 그이를 도와주러 사무실로 찾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저의 어깨를 톡톡 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보, 한가지 일러 두겠는데 여기서는 당신이 집안의 대변인이 아니라는걸 알아야 해요 라고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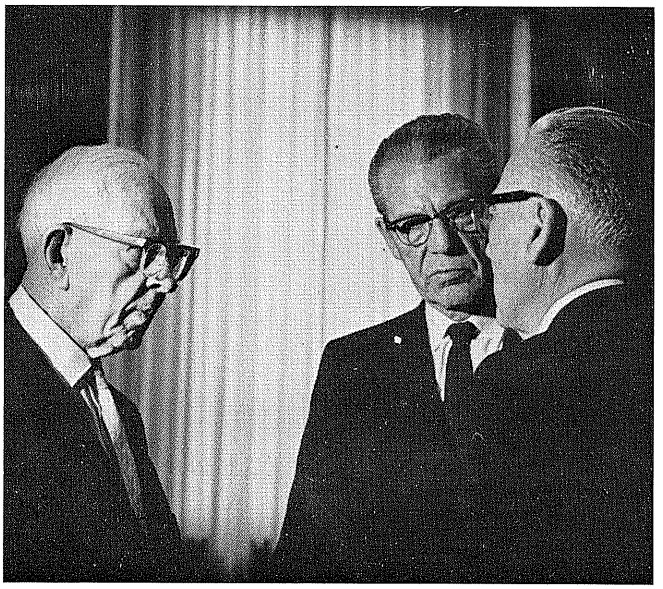
대관장은 또한 누구 못지 않게 열렬한 스포츠 팬이기도 하다.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허락할 때면 언제나 야구와 그 외에 다른 경기를 즐겨 하시곤 했다. 인근 강에 나아가 그 우중충한 물에서 수영을 배우기도 하셨고 오랫 동안 능숙한 기술을 갖고 송구를 했으며 정말 구기 종류의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관장의 자녀들이나 손자들 가운데는 뛰어난 운동 선수들이 참 많다.

그리고 고 데이비드 오. 멕케이 대관장과 스미스 대관장이 서로 아낌없이 나누던 헌신과 깊은 우애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참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몇해 전 멕케이 대관장이 병원에 입원하시며 그의 보좌들과 죠셉 필딩 스미스 사도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병원으로 와서 그분을 안수해 주도록 부탁한 일이 있던 때의 일이다. 마침 스미스 대관장이 멕케이 대관장의 입원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이다호주 루이스톤시에 있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다. 오전 총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동차로 그 곳을 출발하여 밤새도록 차를 타고 여행하셔서 다음 날 새벽 3시에 도착했다. 이때 백발이 성성하게 날리는 두 죽마고우는 평생을 다바친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서로 극적인 상봉을 하여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반가이 얼굴을 비비며 애정에 찬 목소리로 다정한 벗의 이름을 되풀이 하여 부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광경을 보여 주신 일도 있다.

지속성은 최상의 미덕이다.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하여 신념과 가르침에서 초지일관의 꿋꿋한 의지를 보여 주셨다. 지금부터 34년전 한 천기 작가가 스미스 대관장에 관하여 묘사한 글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작가의 훌륭한 필치와 같이 하나의 손색도 없는 그분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의로움은 국가를 흥성케하나 죄악은 백성에게 불명예의 누를 끼친다는 것은 모든 역사가 가르쳐 주는 감명 깊은 교훈의 하나다. 죠셉 필딩은 인간을 모멸과 불안의 함정에 몰아 넣는 불의와 파괴의 원리에 맞서 투쟁하는 의의 십자군이다. 인류를 깊이 사랑하는 그는 자기가 설교하는 원리가 지닌 구원의 능력에 대한 숭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그의 온 정성을 기울이는 노력의 저변에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깊은 소망이 담겨 있다.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아무도 그가 한 말의 의도와 지혜가 정곡을 찔러주는데 대해 잠시도 의문을 가질 수가 없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부패와 악풍이 사람들을 휩쓸어 갈 경우 문명이 개화해 가고 교회와 조직이 지속해 가면서 약간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의 멧세지가 걸머진 책임이 있고 그가 행한 모든 설교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우로부터 스미스 대관장이 그의 보좌인 테너, 리 장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죠셉 필딩 스미스는 건전한 인생의 바탕을 이루는 미덕을 남달리 많이 갖추고 있는데 정직하며 인자하고 신뢰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적이며 활기찬 육체와 명쾌한 확신을 지니고 있으며 목적을 굽히지 않으며 건전한 사고력을 갖추고 순수한 높은 목표와 이상을 가져 순박하면서 감미로운 인간미를 지닌 그야말로 고결한 품격과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 그는 명예롭게 주어진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족한 빼어난 성품과 자질을 지닌 인물이다.

한번은 1966년 멕케이 대관장과 그의 보좌로 봉사하신 휴 비. 브라운, 앤. 앨돈 태너 전 부대관장들이 죠셉 필딩 스미스 사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일이 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크고 작은 것이든 그는 언제나 익숙한 일 솜씨로서 자신있게 모두 처리해 냈으며 주님의 뜻이라면 불평 하나 없이 개인적인 안일을 돌보지 않고 육지와 대양을 건느며 여행을 했고 그의 봉사는 터들거리며 달리는 구식 자동차에서 비롯하여 초음속으로 날으는 제트 비행기에 이르도록 연장되지만 그 어느 때나 집처럼 평안함을 느끼며 여행했다. 그만큼 교회와 교리에 관하여 넓고 깊게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도자도 드물 것이다. 또 좀처럼 보기 힘든 통찰력을 소유한 학자인가 하면 그의 저술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신앙을 북돋우며 영향을 미쳐 왔다.

온화함, 용기, 결단력, 교회 표준을 지키는데 뛰어나게 영민한 점이라든지 잘못을 저지르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보이는 무량한 용서와 관용은 추호도 꾸밈이 없는 그의 특성이다. 그의 내면에는 선을 대변하는 화평이있고 성령이 증거하는 확신이 넘치며, 자기 수련으로 닦은 의무에 대한 불굴의 충성이 맥맥이 흐르고 있다.

누구든 그의 기도를 유심히 듣는 사람이면 "진실하고 충실한"이란 단어를 빼놓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이지 이 말은 그의 생애를 집약한 말이다.

진실로 스미스 대관장이야말로 지상의 주님의 왕국의 지도자로서 봉사하는데 적격의 높은 특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 세상 어디에 살던지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은 그분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환영하고 지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생애의 중요 약력

1876	7월 19일 쏠트 레이크시에서 출생.
1898	쏠트 레이크 스테이크 상향회 임원으로 임명.
1898	루이스 이. 셔트리프양과 결혼 (부인은 1908년 4월에 별세).
1899—1901	대영제국 선교부로 부름 받음.
1901—1910	쏠트 레이크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
1903	저서 "스미스 일가에 관한 일부 기록을 수록한 톱스 필드의 애샐 스미스 전" 출판.
1903—1919	청남 상호 향상회 총본부 임원으로 봉사.
1903	저서 "피의 속죄 및 복수 결혼의 기원"을 재조직 교회의 리차드 씨. 이반스씨와 공동으로 출판.
1904	쏠트 레이크 고등평의원에 임명.
1906	교회 역사 편찬 위원 보조로 임명.
1907	저서 "재조직 교회의 기원과 그 계승 문제" 출판.
1907	유타 계보 협회 서기 및 관리자에 임명.
1908	에멜 지. 레이놀즈 여사와 결혼. (부인은 1937년 11월에 별세.)
1909	유타 계보협회 도서 관리 및 재무 담당자로 임명.
1910	십이사도에 성임.
1910	"유타 계보 및 역사 종합지"의 초대 부 편집인 및 영업부장이 됨.
1912	브리감 영 대학교 이사로 선출.
1912	저서 "만인의 구원" 출판.
1915	쏠트 레이크 신전장 보좌에 임명.
1917	교회 교육 위원회 임원으로 선출.
1921	교회 역사 편찬 위원이됨.
1922	저서 "교회사 요점" 출판.
1924	저서"선지자 엘리야와 그 사명" 출판.
1927	저서 "죽은 자의 구원과 계보 및 신전 사업에 관한 과제" 출판.
1931	저서 "완성의 길" 출판.
1934	교회 계보협회 회장에 임명.
1936	저서 "인간의 진보" 출판.
1938	저서 "죠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출판.
1938	저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출판.
1938	4월 제씨 엘라 이반스 여사와 결혼.
1939	유럽 선교지역의 순방 및 유럽 전역에서 봉사하는 전 미국인 말일성도 선교사의 철수를 감독함. (대영제국은 제외)
1942	저서 "회복된 복음의 원리" 독일어 출판.
1942	저서 "때의 징조" 출판.
1944	저서 "만유의 회복" 출판.
1945—1949	쏠트 레이크 신전장으로 성임.
1951	6월 4일 브리감 영 대학 명예 문학박사 학위 받음.
1951	4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에 성임.
1953	저서 "교회사와 현대 계시"(2권) 출판.
1954	저서 "인간의 기원과 운명"출판.
1954	저서 "구원의 교리" 제일권 출판.
1955	저서 "구원의 교리" 제이권 출판.
1955	일본 선교부를 방문하여 한국, 오끼나와를 선교 지역으로 봉납하고 필립핀에선 복음에 관한 설교를 행함. 일본 선교부를 분리시켜 북극동 선교부와 남 극동 선교부를 조직함. 1954년의 헤롤드 비. 리 사도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사도가 됨.
1956	저서 "구원의 교리" 제삼권 출판.
1957	저서 "복음 교리 문답" 제일권 출판.
1958	저서 "복음 교리 문답" 제이권 출판.
1959	뉴질랜드 및 오스트랠리아 스테이크 및 선교부 방문.
1960	유타 방위대 명예 준장에 임명.
1960	저서 "복음 교리 문답" 제삼권 출판.
1960	남미 선교지역 순방.
1963	저서 "복음교리 문답" 제사권 출판.
1965	10월 29일 대관장단 보좌에 성임.
1966	저서 "복음 교리 문답" 제오권 출판.
1966	미국 교회사에 관한 서적과 자료를 갖고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 도서관 하나를 그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붙임.
1970	제10대 대관장에 성임.

기독교적 사랑

존 더블유. 벤욘

● 말일성도의 특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야 하겠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결핍보다 더한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읍니다.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은 십일조의 법이라던가, 지혜의 말씀, 금식의 법 등과 같이 그 정의가 정연한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랑이란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남녀간의 뜨거운 애정이나 격렬하고 육체적인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데 뜻을 달리 할 사람은 많지 아니 할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기독교적 사랑이 친한 친구간의 깊은 우정이나 가족간의 두터운 사랑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사랑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상호간의 생활에서 얻어진 정, 유대 의식, 가치관 등으로 친구나 가족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따뜻한 정을 갖읍니다. 기독교적 사랑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대하듯 모든 인류를 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전혀 생소하거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친근감이나 따듯한 정을 가질 수 있겠읍니까?

기독교적 사랑이란 우정이나 가족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타인에 대한 정은 감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보다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보다는 이성을 다스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따듯한 정으로 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선의를갖고대하겠다는 의지를 지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상대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감정에 구애됨이 없이 선의를 품는다는 것은 인류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을 갖기로 작정한 것과 같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심은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신과 같은 위대한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현재의 개개인의 가치로 인해서가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장래의 지표를 향한 그의 잠재력으로 인하여 충분한 인정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 스스로에 대하여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말일성도라면 누구나 이러한 사람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진정한 존경을 가져야 겠읍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뜻에 좇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각각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깨닫게 하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했읍니다. 이러한 결심은 범 우주적인 선을 바탕으로 합니다. 나의 사견이지만 비록 상대방에 대하여 속에서 울어나오는 따듯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때라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나 저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버릇을 길러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시기 모략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자세를 갖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우리가 우리의 친한 벗이나 가족이나 저절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대하듯 저들에게도 자애로운 마음과 기독교적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또 베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하고 선한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좀더 설명해 보겠읍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합니다. 어머니는 늘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은 대체로는 따듯하고 긍정적이며 훌륭한 어머니일수록 노여움과 마음 아픔을 겪는 순간순간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읍니다. 때로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시련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로 인하여 마음을 다치고 실의에 빠지는 노한 때라도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읍니다. 자녀에 대한 감정이나 주변의 여건에 관계없이 어머니는 늘 자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사명감에서 행동합니다. 아이들이 배고파 할 때는 먹이고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치거나 해를 당하게 될 때에는 즉시 보호의 손길을 폅니다.

높은 수양을 쌓은 의사나 변호사, 교사와 그의 제자나 하객들과의 관계를 또 다른 예로 들어 볼 수 있읍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 갈 때 우리는 의사가 얼만큼 우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그의 봉사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관계 없이 의사가 갖고 있는 온갖 재능과 도구를 우리의 복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는 교사도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들의 자녀 전체의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읍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의 두드러진 품성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며 개인적인 감정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의 제자나 환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착한 뜻을 배우고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영향력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위에 열거한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독교적 사랑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착한 뜻 곧 선의의 열매는 그것을 행하는 우리와 그것을 받는 상대에게 긍정적인 따뜻한 정을 심어줍니다. 우리를 시기, 증오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보이면 언젠가는 저들도 태도를 바꾸어 우리가 베푸는 대로 우리에게 행동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보일 때 우리는 참으로 용기를 얻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속단해서는 안되며 늘 착한 뜻을 계속하여 행하되 상대적으로 상대의 호응의 결과에 따라 행동해서도 안됩니다. 우정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지만 선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선의를 베풀 때, 설혹 그가 자기에게는 호의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선의를 베푼다는 사실 하나로 흐뭇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감정이나 받는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상의 표현이 아닌 의지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중들에게 기독교적 사랑을 갈파하며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를 대할 때에도 평등하게 하라고 했읍니다. 또한 그는 군중들에게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적 사랑을 실제로 구현하려 할 때에 우리는 몇가지 위험한 함정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함정의 예를 하나 들면 온전한 의미의 선의가 아닌 추상적인 선의를 시도하려는 의도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생각은 참된 내용이 결여된 것이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기독교적 사랑의 원리를 몸소 실현한다는 망상을 갖게 해 주는 수가 있읍니다.

인류에 대한 우리의 선의의 사상이 교회나 직장이나 혹은 이웃간에 대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선의를 베풀지 않을 때에는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 건립에 냉담한 사람의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임무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를 사랑하노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정열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와 더불어 나누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야말로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위대한 박애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유혹인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랑을 생활하는데서 야기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대상에 대한 편파적인 편견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선의를 베풀려 하면서도 종파,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등을 너무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위에 열거한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나 확신에 뿌리를 둔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와 공통의 유대를 갖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선의라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와 공통된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히 쉽게 어울리게 되며 이러한 관계는 세상 모든 사람의 경우가 다 같습니다. 하나도 나쁜 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절대로 이러한 인간 관계로 인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겠읍니다.

기독교적 사랑이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추구하여야 할 삶의 지표이어야 하고 달성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에게 편견없는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뜻을 필생의 이념으로 삼아야 겠읍니다. 이러한 태도야 말로 해의 영광의 세상을 사는 필수 예비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가정에서 사랑하는 생활을 배우나 궁극에 가서는 음흉한 뜻을 품거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혹은 생면 부지의 나그네를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겠읍니다. 하나님은 온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인류는 하나의 형제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는 여하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겠읍니다. ○

자세와 기능

조지 알버트 스미스 이세

● 약 2,000여년 전 예수께서 지도자를 택하시던 방법과 현대의 기업주들이 관리 임원을 선택하는 방법을 비교해 볼 수 있겠읍니까?

흥미 진진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읍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는 일과 예수가 시도했던 일과는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런 중에도 일반적으로 서로 상통하는 유사점이 있읍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만 지도자는 적어도 자기가 꼭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기 임무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도자는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이로써 타인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평범하거나 불충실한 상태에서 머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라도 더욱 배우고 일하겠다는 열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환언하면 지도자는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업주가(혹은 주님) 개별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이에 쫓아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어느 때 어떠한 사유로 해서 자기에게 막중한 책임이 맡겨지던지 그 일은 또 그 일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이행해야 할 임무 및 책임에 대한 열의를 충분히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일에 임한다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설혹 과오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반드시 큰 면책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동안 착오가 생긴다면 일의 처리 방법을 변경해야 하겠읍니다. 책임을 맡아 그 일에 종사하여 경험을 쌓으므로서 우리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며 새로운 것에 대한 필요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한 의지,
강한 마음.

대체로 사업계에서 머리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여러 사람을 매어 두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러한 참모는 유능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윗 사람을 위하여 선선히 일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야 겠읍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개인의 재능은 물론 그의 자세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조직을 위하여 유능한 선교사를, 숙련된 교사를, 치밀한 집행인을, 사려 깊은 연구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맡겨진 일을 열심히 배우겠다는 자세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일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학구적인 연구를 쌓은 사람의 수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선택된 사도 중에도 극소수였고, 아울러 그리스도는 사람 사람의 능력을 알고 계셨읍니다. 그리하여 구세주는 그의 새로운 조직을 이루기 위하여 가능하기만 했다면 토속에 밝은 사람, 용기있는 사람, 신체가 강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것이고 자기의 삶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선택하셨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셨읍니다.

예수는 사업가 보다도 장차의 목표에 대하여 더 잘 알고 계셨으며 2,000년의 공간을 메우고 최후의 난관을 극복하여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어떻게 기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계셨읍니다. 그렇다면 절정의 시기에 있어서 그의 목표, 곧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취하시고자 과연 그는 그런 일에 필요한 의지와 결의가 굳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한 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부, 농부,
목동.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가 소위 유대주의에 도전하여 일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달리는 적어도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회복시켜 항상 개선시키셨다고 볼 수 있읍니다. 목표, 목적, 가치 평가, 방법 등의 과정의 작업이 물론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당시나 그 이전 여러 세대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속박되어 살았읍니다. 이들은 모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스스로 왕이었으면서도 비유대인들의 통치를 받는 속박된 백성이었읍니다. 독자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들에게는 자기들을 속박에서 풀어 자유롭게 해 줄 구세주 혹은 구속주, 기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는 사람을 기다리는 때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감안하여 사람들 중에는 예수는 마땅히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고 사도들도 모두 이렇다 할 가문의 출신들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읍니다. 요셉을 살펴 봅시다. 그는 목수였읍니다. 그리스도는 어부, 농부, 목동들을 제자로 선택하셨고 기타 세상 일에 종사한 사람 몇명과 극소수의 공인을 뽑으셨읍니다. 아마도 이들은 대체로 복음에 관하여 공통된 지식과 관심을 가졌고 관습, 소망, 주변을 개선시키겠다는 요구에서 오는 문제 등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읍니다. 이들에 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들은 다양한 성품과 기준의 집단이었읍니다.

조지 알버트 스미스 이세는 교회 제8대 대관장이셨던 조지 알버트 스미스 형제의 아들로서 하버드 대학교 경영관리 교수로서 봉직했었다. 그는 1969년 10월 12일 서거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비범하심을 알았으며 이로써 자기들 개개인의 생업을 던져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가시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 다녔고 늘 가까이서 보좌했읍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여러 가지를 여쭈었고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분부하시는 여러 가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의 명에 따랐읍니다.

그리스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업적의 기록에는 사도 개개인의 신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사도들이 생각하던 예수의 사업과 예수 자신이 생각하던 일의 목적과는 판이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읍니다. 제자들이 소망하고 듣기를 원하였던 바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게 전하셨으며 제자들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규명하려 하였읍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더러는 그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던 사실을 잘 기억할 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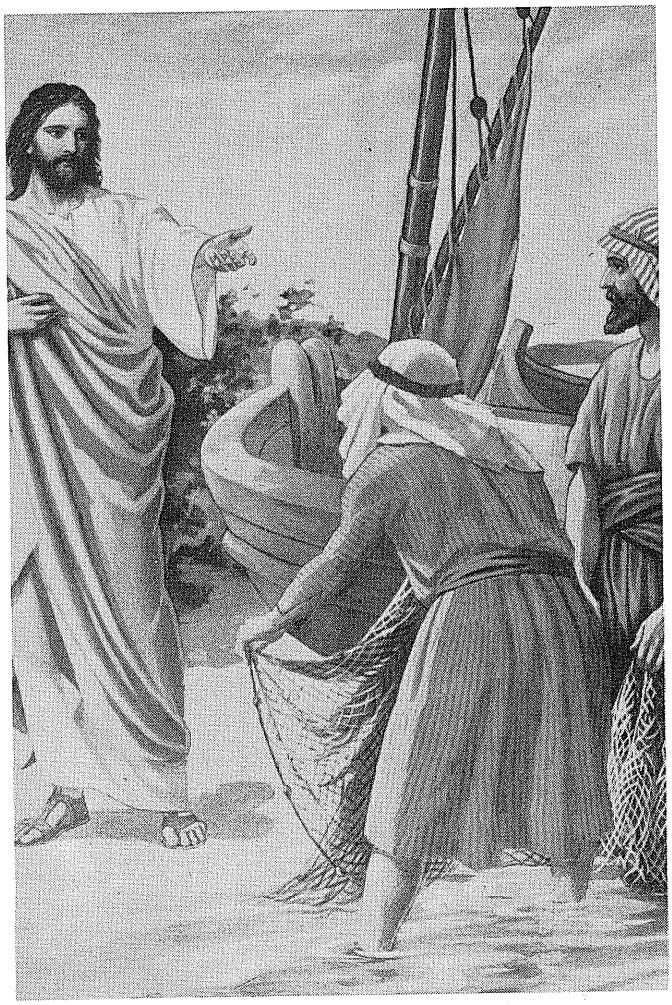
배반, 거부, 의혹.

예수가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겪었던 일, 기타 기록에 보면 예수가 공공연하게 꾸짖었던 소위 "권세가"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인 지위)들은 예수를 적어도 말썽쟁이로 보았고 나아가 그를 위험한 종교 혁명가로 보았읍니다.

예수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그의 모든 친구와 혹은 원수가 되는—은 그가 가르치고 행하고 공포하고 축복하고 저주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이유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읍니다. 예수가 만민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며 인류 역사와 개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마침내는 예수의 영향력의 증대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커가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된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읍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태였읍니다만 이제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참고 한다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니었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만 재물, 정치적 사회적 권세, 명망 등에만 집착하므로 인류의 정의와 평등한 사랑을 주장하는 원리 자체를 두려워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께 무지하여 자기 죄를 모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읍니다. 마지막 혼란된 시간에 그토록 그때까지 충성을 다했던 유다는 그를 배신하였고, 베드로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읍니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 도마는 그가 눈으로 본 사실을 의심했읍니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가 그들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를 알아보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번 제자를 부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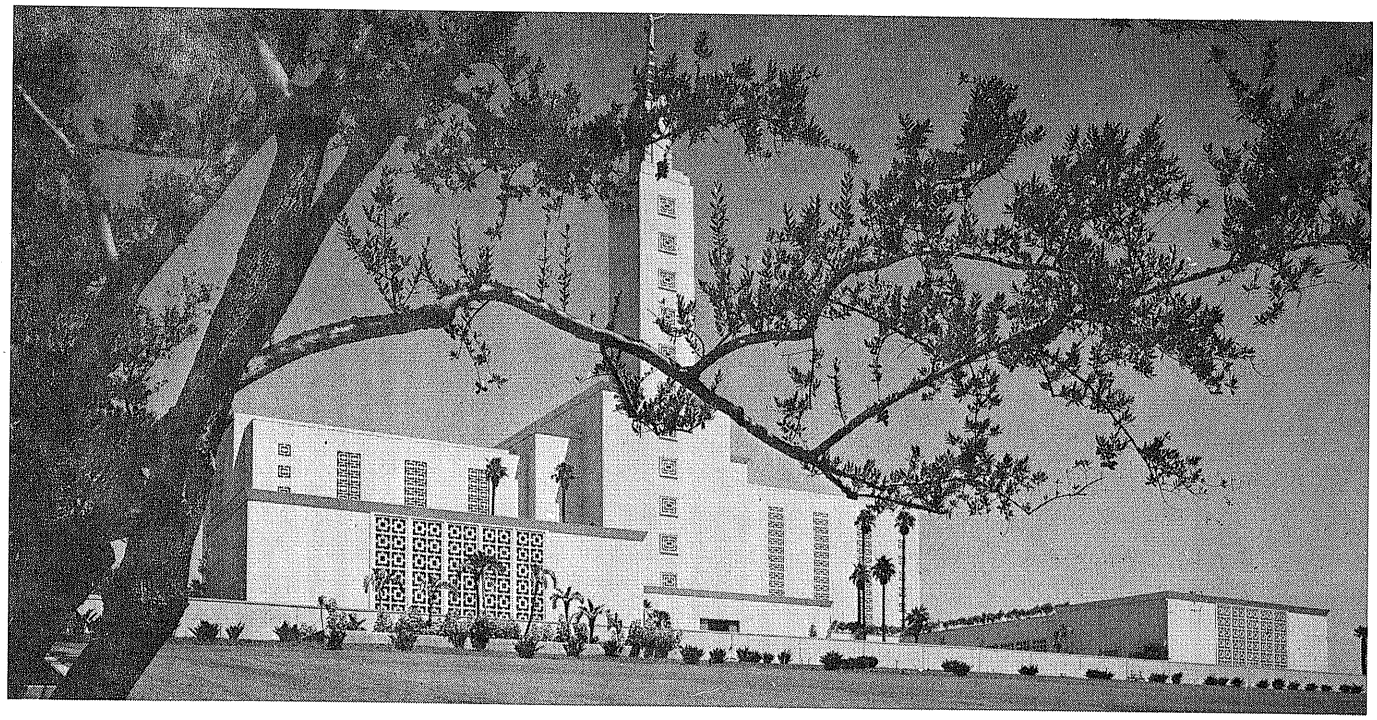
부름에 충실함.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가 못박히신 다음 사도와 그밖에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낙심하고 공허해 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오순절이 지나 성령으로 저들의 이해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도들은 예수의 성역, 그의 탄생,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방문, 그의 작별, 그의 재림의 약속 등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기와 모든 인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떠나신 후 마띠아가 유다 대신 선택되었고 바울은 다른 사도와 함께 열심히 그리스도의 멧세지를 만방에 전하였읍니다.

그 후로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하면서 일생을 마쳤읍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의 가르침을 믿도록 권고하였고 목숨을 바쳐 가르침에 따르도록 가르쳤으며 그리하여 영원한 보상을 쟁취하라고 가르쳤읍니다.

과연 예수는 그의 제자를 잘 선택한 것일까요? 제자들이 그를 잘 섬기며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행하였읍니까? 죽음을 걸고 이들은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으며 예수의 사업을 이끌고 갔읍니다. 참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하였읍니다. ○



주님의 집

존 에이. 윗소 장로

● 신전은 교회의 가장 거룩한 의식이 집행되는 건물이다. 이는 "기도의 집이요, 금식의 집이요, 신앙의 집이요, 배움의 집이요, 질서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교성 88 : 19) 참으로 신전은 땅에 지어진 주님의 집이다.

어느 경륜의 시대를 막론하고 신전은 필요한 것이니 이는 신전에서 주님이 직접 혹은 성령을 통하여 세상이 그 마지막 운명을 준비하게 하는데 필요한 계시를 전하시기 때문이다. 신전으로 말미암아 현세와 영원이 연결되며 구원의 계획이 더욱 분명하게 설명된다. 복음의 생활도 오직 신전 활동과 행사를 바탕으로 한다.

신전 안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힘은 밖으로 뻗어나와 세상을 축복한다. 주의 집에서 발산되는 빛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비쳐 신전 활동에 참여하므로써 모든 신전의 특전을 허가받도록 한다. 성도의 집과 신전이 연결된 길은 거룩하고 빛나는 길이다. 신전의 정신으로 밝혀진 가정에는 늘 빛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화평을 발견한다. 참으로 신전이 지상에 존재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빛을 받으나 신전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납처럼 무거워져서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시온이 떠났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신전은 교회 회원의 복리와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세워진다. 신전의 열쇠도 신전에서 전달되었으며 이로써 세상 생활에 필요한 권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하늘의 권세와 대화하며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지혜를 쌓아 의심과 회의를 쫓아낸다. 신전 의식과 행사는 참으로 의미심중하며 삶의 신비를 해명하고 복음의 뜻을 보다 명백하게 풀이 해 준다. 정직한 마음으로 신전 의식을 받은 자는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며 인생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다.

인간은 신전 사업을 통하여 보다 높은 성품을 갖게 되며 보다 높은 차원의 기쁨을 얻는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엔다우먼트는 한번 밖에 받을 수 없으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하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리 행사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적인 작업인 것이다. 대리 행사를 맡아 봉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에서 구세주가 갖는 기쁨을 얻어 갖는다. 그리하여 만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 이와같이 신전 사업을 통하여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으로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행하라"라는 황금율은 스스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 행사를 하는 사람은 즉시 보상을 받는다. 죽은 사람을 위한 대리 의식을 집행하려고 신전에 들어갈 때

마다 우리는 인간의 영원한 여행을 다시 음미하게 되며 영원한 진보의 법을 다시 깨우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기로 한 성약을 되새기고 의로운 사람들이 받을 보상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기억은 새로워지고 양심의 등은 밝아지며 소망은 하늘에 까지 닿도록 벅차 오른다. 자주 신전에 참여하므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축복을 얻는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행한 신전 의식으로 인한 축복을 받는다.

신전에 들어가 기억될만한 가장 가치있는 의식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신전으로 넘쳐 흐르는 축복을 만끽할 수 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얽매인 사람은 비록 신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신전 의식의 참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전에 거하심을 느낄 것이다. 신전에서의 의식이나 기타 교회 순서 이행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하여 집행되나 그것이 거룩하고 온전한 의식임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신전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육적인 불완전을 영적인 완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신전 의식으로 얻어지는 특권을 의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화평과 안전과 이해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신전이 허가하는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일찍 신전 의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신전 결혼으로 남녀가 인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신전은 "모든 성도가 감사드리는 곳이요……저들이 저희 성역과 이론과 원리와 교리를 이해함에 온전케 되며 너희에게 그 열쇠가 부여된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일에 있어서 온전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참으로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교성 97 : 13—14, 16) 말일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축복을 필요로하며 세상 모두가 절실히 필요로 한다.

신전이나 신전이 전하는 진리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신전을 주시고 신전의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늘 신전을 짓고 신전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한다.

죤 에이. 윗슨 장로는 1872년 노르웨이에서 탄생하여 1952년 11월 29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타주의 2개 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1921년에는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 뛰어난 문필가로서 오랫동안 임푸르브먼트 이라지의 주간을 맡기도 했다.

최대로 이용하자

리챠드 엘. 이반스

자기가 받은 은사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소녀에게 참다못한 어머니가 "난 너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었어. 그러니 그걸 가지고 무엇을 좀 하란 말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를 최대로 이용하라. 시간, 기회, 재능, 예지, 좋은 땅과 땅이 산출하는 모든 것을 주었으니 이를 사용하여 무엇인가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즈음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는 말을 연상케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낭비는 시간, 재능, 기회, 창조적인 노력에 등한 한 것 입니다. 발전에의 무관심, 배움에의 무관심, 일에의 무관심, 회피적이며, 될대로 되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태도는 낭비 중의 낭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도 있으며, 어렵고 책임을 수반하는 일도 능히 감당해야 할 여유도 있읍니다. 옳은 방향을 찾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값진 능력과 기회를 사용함에 무관심이나 회피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발전에의 발걸음에 발맞추어야 하겠읍니다. 이 넓고 축복받은 땅 위에, 또는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불안과 불만을 줄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었으니 이를 최대로 이용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발전과 능력의 개발이라는 큰 사명을 완수해 나가려 하는 의욕입니다. ○

돌이킴의 시작

사뮤엘 엘. 홈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 16 : 16—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시고 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대답이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것은 완전한 지식이 몸과 영을 사로잡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약함과 의심의 방황은 그 뒤로도 자주 선택된 이 종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베드로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확증을 얻었으나 이들이 한결같이 믿음이 돈독해 지지는 않았다. 자기를 사로잡는 개별적인 계시의 섬광이 인생의 제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대인 관계를 이루어 주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모든 의심을 푸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교 생활의 경험에서 배운다.

"네가 돌이킨 후에"

베드로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과격하고 참을성이 없었으며 돌이킨다고 하는 일이 자기나 세상 모든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빌립보의 해안에서, 후에는 변형의 산에서(마태 16 : 13—17, 누가 9 : 28—32을 참조)얻은 지식은 우직하고 열의에 찬 어부가 마음 가짐을 바꾸는 계기를 이루어 주었다. 그러나 메시야의 사명에 대한 그의 이해는 손으로 밥을 빌어먹던 그의 생활 양식을 근 삼년이나 완전히 변경시켜 놓았다. 베드로가 처음 고백한 뒤로 훈련 기간을 통해서 예수는 그의 예임된 죽음에 관하여 계속해서 언급했으나 그의 제자 베드로는 크게 깨닫지를 못하였다. 예수께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어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하시며 삼일 후 부활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주님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마태16 : 23)

인간은 원래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대치하면 좋을 그런 격정을 가지며 베도로도 이러한 격정의 사람이었다.

죽음에 임박하여 주는 제자들에게 근처에 따로 떨어져 있으리라고 하셨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였으나 수제자의 먼 앞일까지를 예견하신 예수는 거듭 주의를 주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

사뮤엘 엘. 홈스는 유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제 칼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다. 그는 영국과 뉴잉글랜드에서 선교사업을 했으며 한 때는 주일학교 총본부와 스테이크의 고등평의원, 주일학교 감독,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었다. 그는 아내와 다섯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22 : 31—32)

그토록 절박한 시간에 "네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재미있는 의미가 숨어 있다. 새로운 개혁판 신약성서에는 "돌이킨 후에"라는 이야기가 더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구절은 계속적인 훈련이 없이는 비록 기적을 수반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의 양을 먹이라"

예수가 잡히던 날 서투른 칼을 휘둘러 말고의 한쪽 귀를 자른 베서도 힘에는 힘으로 응징하겠다는 과격한 베드로의 성품의 일면이 엿보인다. 말고의 귀를 다시 낫게 해 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신 예수를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리라. (요한 18 : 10—11, 누가22 : 49—54참조)

그날 밤 이미 예수께서 예언하신대로 예수께서 잡힌지 불과 몇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세번이나 부인하였고 이내 크게 뉘우치고 한탄하였다. 사람이 목전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의지를 굽히는 경우처럼, 신앙의 시험에 실패한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누가 22 : 56—62를 참조)

그러나 시험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니었다. 누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기록하였고 그밖에 다른 기록자도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사람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극히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복음이 온 세계에 가르쳐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 "이해의 눈이 열렸다"고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분명히 깨닫지를 못하였다. 진정으로 돌이켜야 할 막중한 사명감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러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의 옛 일터로 돌아가 고기잡이에 종사하였다. 고난을 겪던 어느날 밤이 지나자 어떤 음성이 들리더니 배 오른 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렸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이신 줄을 깨달았다. 불가에 둘러서서 함께 음식을 들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면서 베드로는 세번이나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역설하였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그 이후론 베드로는 지도자로서의 자기 임무를 완전히 깨달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일하였다.

순종—돌이킴의 바탕

그의 신념과 확신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다른 사도를 선택하였으며 선교 사업을 펼치는 사업 등에 헌신하였다. 초막절이었던 날 그는 수천 청중 앞에서 회개와 침례를 가르쳤으며 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타국 사람들도 기적적으로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였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제사장과 그의 권속들에게는 저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나사렛 예수 외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그로써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다시 없다고 가르쳤다.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스려야 했고,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을만큼 합당한 것으로 알고 두려움 없이 기쁨을 만끽하였다. (사도행전 2—5참조)

베드로가 온전히 영으로 거듭나 모든 활동을 주관할 권세를 가졌음에도 그는 아직도 치러야 할 많은 시련의 과제를 갖고 있었다.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등의 이적을 베풀면서도 더러운 음식에 관한 시현과 고넬료 및 다른 이방인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치러야 했다. 이들 이방인들의 침례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는 위기가 닥쳐왔고 끝까지 견디어 승영에 이르는 돌이킴의 과정에서 또 새로운 교훈을 배워야 했다. 그는 유태인 교도를 신랄하게 반박하는 교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더욱 더 배가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갈라디아 2장, 3장 참조). 유대교 신봉자에 대한 반발은 연조가 어린 그리스도 교회를 여지없이 파괴했으나 결국 베드로의 안목을 넓혀주어 유대인의 믿음 보다는 범우주적인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 주었다. (사도행전 18 참조)

오랜 세월을 어려움 속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베드로는 마침내 이 위대한 수제자의 돌이킴을 온전케 하였다. 그의 종말에 관하여 알려진 사항은 많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가 직접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설파하였고 특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베드로후서 1 : 12—18)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도 적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생애를 살펴보면 기적만이 돌이킴의 열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기적보다는 신앙이 약해 졌을 때 이를 새롭게 하고, 더 배우고 더욱 회개하겠다는 의지를 기르며, 더욱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하겠다. 아울러 "돌이킴"의 열쇠가 되는 헌신적이고 끝까지 지속되는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겠다. 베드로는 수년간을 복음의 중요함을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 쳤다. 멍애는 가벼워 졌고 걸머진 짐도 마침내는 가벼워 졌으나 이는 기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오 "돌이킴"의 과정을 통한 것이었다. ○

계보 : 위대한 동등자

데이비드 에이치. 프랫

● 계보란 개인의 조상과 계열을 밝히는 체계적인 학문이다. 아울러 계보 연구는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 인류, 발전에 입각한 기술적인 응용으로 체계를 세운다.

말일성도는 계보사업을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묶는 도구로 간주한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가정이 그 기본 단위이며 왕국의 해의 영광의 문도 가정이 하나의 영원한 가족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신전 결혼 의식을 갖고 가정의 밤을 함께 가지며,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므로서 엘리야의 가르침대로 일한다 하겠으나, 계보사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가정의 유대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계획의 전모를 깨닫는 것이다. 그 때에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선지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의 의미 심장함을 깨닫는다. "우리의 사명과 부름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데 엘리야의 권능만으로 충분하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8페지)

계보의 영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계보가 궁극의 목적을 달성케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계보 사업이 인생의 여러면에 연결되는 깊은 의미와 무한의 가능성을 경시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 계보의 기록은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의 연구 작업을 도울 것이다. 계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사건의 사유를 알아 낼 수 있으며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했는가를 알아 낼 수도 있다. 옛 문화의 근원이라던가 그로 인한 관습 및 속례 등도 분명히 알아 낼 수 있다. 계보 기록은 역사의 근간이며 계보를 연구하는 사람은 계보의 기록이 역사의 전후를 연결하는 고리가 됨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계보는 인류 역사의 동향과 인류역사의 뿌리와 줄기를 이룬다."(안토니 알. 와그너 지음, 영국인의 선조)

변천하는 오늘에 있어서 계보는 더욱 중대한 사명을 갖는다. 근대의 기계 물질 문명은 과거에는 분주하고 고달프던 인간에게 시간과 재산과 교육 연구에 쏟을 수 있는 여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가는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를 와해 시키고 주어진 여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인류를 방황하게 만들었다. 헛된 오락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헛된 것을 위해 현재를 낭비하고 있다. 계보 사업은 이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높은 차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여가를 선용하도록 해주며 "잃어버린 삶, 권위, 의미 등을 소생시켜주는 고리"를 맺도록 조력하게 한다. (전계서)

몬테스큐(불란서 법학자며 철학자. 1689—1755)는 경건한 삶으로 이끌리지 않고서는 "죽은 조상을 공경"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계보 사업은 인류 공동유산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해주며 상호간에 더욱 두터운 유대를 맺게하는 도구가 된다. 계보 자체가 인간을 돋보이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인간 관계의 긴밀함을 깨달아 자기 이외의 남을 대할 때 보다 큰 관용을 갖도록 해준다.

또한 계보가 죽은 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엘리야의 권세로 묶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교회의 교리에 보면 죽은 자나 산 자를 막론하고 우리의 가족이 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할 시간이 내게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다. ○

데이비드 에이치. 프랫 형제는 브리감 영대학교 계보 강사로 있는 분으로 전에는 계보 위원회의 조사담당 부책임자로 있었다. 그는 프리센트 그로브 제5와드의 대제사 구룹 지도자로 있다.

관리 감독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저들의 지부장

죤 에이치. 반덴버그

● 알랙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출처가 분명치 않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모르나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사도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며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어떤 젊은이를 만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얼마동안을 그곳에 머물었던 요한 사도가 그곳을 떠나면서 지도자들에게 여러가지를 당부하였고 그 젊은이를 잘 살펴보라는 지시도 해두었다.

얼마 후에 요한이 다시 그곳을 방문하여 그가 살펴보라고 한 젊은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다. 주변에 있던 자가 "그는 죽었읍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었단 말인고?" 요한이 물었다.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하나님을 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죽었읍니다. 그는 점점 사악해 져서 산에 비적이 되어 갔고 교회에 나

오는 대신 그를 따라간 비적을 거느리고 산에 은거하고 있읍니다."

요한은 말 한 필을 청하여 타고 곧장 말을 달려 비적의 은거지로 달려가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저들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잡히면서 "내가 일이 있어 스스로 왔으니 너희 두목을 만나게 하라."고 외쳤다. 두목은 무장을 한 몸으로 요한에게 다가 왔으나 그가 사도 요한 임을 알자 부끄러움으로 크게 당황하여 그 앞에서 달아나고 말았다. 그러나 요한도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쫓아가며 "나의 아들아, 어찌하여 너는 너의 친부에게서 달아 나느냐? 나는 무장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노령이 아니냐? 내가 딱하지도 않으냐? 겁내지 말고 게 섰거라. 내 말을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외쳤다. 이 말을 듣자 젊은이는 묵묵히 돌아서서 무기를 던져 버리고는 몸을 떨더니 서럽게 울기 시작하였고 요한이 다가 오자 그를 끌어 안고 목멘 소리로 자기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사도는 오히려 자기가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하며 젊은이를 교회로 데려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의 품으로 온전히 그가 돌아 올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야기는 이미 초창기의 그리스도 교회 시절로부터 당시의 사도들이 젊은이들에게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된다. 오늘날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갖는 관심도 친 자식에게 갖는 것 만큼 절실하며 가깝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부장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지부장은 아론 신권회의 회장이며 지부내의 청소년을 특별히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진다.

교회의 젊은이는 지부장과 가까이 하며 그의 훈계에 따르고 지부장의 지시에 따르며 그를 존경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교회에서 지부장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또 신성하다. 따라서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이다. 지부장은 주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을 통하여 부르신 일꾼이다. 비록 이들이 각각 다른 생업을 가진—목수, 농군, 교사, 박사, 의사 등등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부장의 직을 맡는 사람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감독(지부장)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 : 2—7)

오늘날의 감독도 흠이 없어야 하며 주의 깊고 온유하며 선행을 하고 친절하고 잘 가르치고 인내심이 강한 자라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나 의혹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하고 영감과 지혜를 행사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 또한 헌신적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부장이 되기 어렵다. 지부장은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바쳐 부름받은 일을 이행한다. 지부장은 지부의 영의 아버지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아보며 지부의 예산을 처리하고 자기 지부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판사가 된다. 지부장의 직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성한 것이다.

지부장이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이행하자면 와드에 속한 젊은이들이 신뢰와 확신으로 협력해 주어야 한다. 지부장을 도와 일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지부에 속한 사람으로의 임무인 동시에 허가된 귀중한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몰몬경에 보면 리하이가 그의 아들을 예루살렘에 돌려 보내 레이반의 검을 가져오게 한 기사가 있다. 리하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께서 내게 명하사 너와 너의 형들을 레이반의 집에 보내어 기록을 찾아 광야로 가져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보라 네 형들은 내가 저들에게 명한 일이 어렵다 하여 불만을 토하였으나, 보라 이는 나의 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명이시니라.

그러하니 가라. 나의 아들아. 네가 나의 분부에 거역하지 아니 하였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하신고로,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 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부친이 이를 듣고 심히 기뻐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축복하셨음을 아셨음이라."(니일 3 : 4—8)

남녀를 막론하고 지부장의 훈계와 권고에 따르는 자는 주님의 종의 가르침 대로 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옛 니파이처럼 풍족하게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지부장은 바로 여러분의 복리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이 그의 권고에 따를진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경전에 담긴 즐거움

엘린 캐논

● 경전을 다루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외운 요점을 암송하기도 하고 긴 경전의 말씀을 경우에 맞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경전 말씀의 장과 절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는 지혜까지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원리가 우리에게 부딪힌 경우와 관계되는가를 가르침 받지 않고 서는 분명하게 한정 짓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나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읍니다. 중대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그런 경우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든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려 하기 보다는 "우리들 육신의 팔"에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의 열쇠가 되는 권고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시란?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1:5)

만일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혹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해야겠는데 도움이 필요 할 때 여러분이라면 경전에 언급된대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겠읍니까?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라도 대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아닙니까?

성공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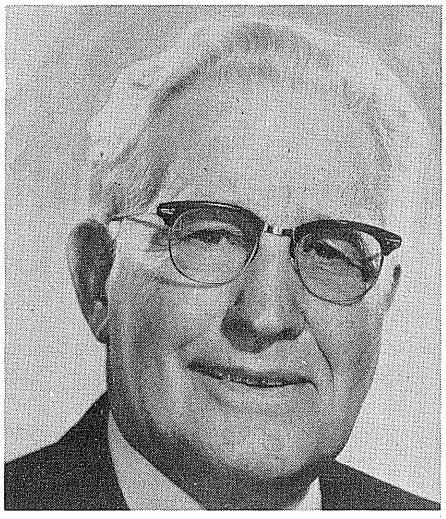
"게으르기를 그치라. 부정을 금하라. 서로의 결점 찾기를 그치라. 필요 이상의 잠자기를 그치라.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희 육체와 정신을 활기있게 하라."(교성88:124)

오늘날의 십대를 위하여 기록된 글같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권고의 말씀에 따르기만 한다면 큰 축복을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를 축복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리라."(모사이야 2:22)

인내에 관하여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충실하여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생을 상속으로 물려 받을 것임이니라."(교성 50:5)

우리가 마음과 뜻을 영생의 기쁨에 귀착시킬 때 우리는 힘든 병역의 의무를 기쁘게 마칠 수 있고 유혹을 견딜 수 있으며 오래 참고 인내로 기다릴 수도 있읍니다. 이는 사랑과 친절과 용서와 이해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



간 증

휴 비. 부라운
십이사도 정원회

■……본 기사는 부라운 형제님이 대관장단의 일원으로 수고하시던 때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증인은 대체로 자기의 진술 내용을 엄숙하게 공포하거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증언자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참됨을 간증할 때도 역시 우리는 엄숙하게 자기의 뜻을 공포하지만 그때의 지식은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갖는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오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나 있다면 아주 적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참된 간증 즉 하나님은 참되시고 개체로 존재하시며 나사렛 예수는 그의 아들이라는 간증은 계시에 의한 것이며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증언의 내용이 뜬소문에 근거를 두었거나 남의 얘기에 의한 것이라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참되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고 지도자를 지지하고 존경해야 겠지만 심오한 마음으로 스스로 시도하여 확신을 얻기 전에는 어느 지도자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간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진실성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영의 확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돌이킴은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원은, 자기가 교회의 모든 복음 원리에 대하여 간증하지 않았다 하여 교회를 멀리하거나 혼란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은 그 축복이 약속된 율법에 순종하였으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법칙은 복음의 간증이라던가 기타 이와 비슷한 경우에 다 적용됩니다. 합당한 사람이라면 지식이 약속된 율법에 순종할 때 누구를 막론하고 간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도 다른 경우에 처럼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 있으며 그것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하는 자는 먼저 복음의 참됨이라든가 기타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꼭 알아야 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합니다.
2.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과 관계된 모든 것에 관하여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고 교리와 성약 1편 37절에는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고 되어 있읍니다.
3. 구하는 자는 자기가 배운 진리의 원칙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7 : 16—17)고 말씀하셨읍니다.
4. 구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신앙을 실천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성령을 통하여 계시로 밝혀 주실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 5)라고 말씀했읍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 그리스도의 물음에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했을 때 그는 계시의 영에 이끌린 것이었으며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 16 : 17)고 하였읍니다.

위에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람이 필요한 준비 사항을 배워 그대로 살면서 아버지께 구하면 개인적인 계시도 가능함을 배울 수 있읍니다.

상호 부조회에 관하여 누군가가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 건물과 교회 회원의 주택에 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집마다 각각 그 집 특유의 개성이라면 좀 우습지만 그런 개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 성격이란 것이 대체로 그 집의 주부가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간증의 정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가정의 주부가 간증을 길러야 하고 성령의 안내로 가

정의 제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노력하며 주님과 주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 일이 지극히 중요함을 뜻하고 있읍니다.

환언하면 어머니는 위대한 신앙—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기 자신과 동반자에 대한 일종의 신앙, 의로움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신앙, 지식을 초월한 신앙, 생의 고난과 종교생활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의 주부는 세상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에 모두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과 간증을 가진 어머니는 의로운 생활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하며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늘 성령의 동반을 간구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간증을 얻고자 노력할 때 얻어지는 지식은 물론 가정을 다스리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관련된 모두를 대상으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철저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리를 알면서 그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두운 곳에서 등에 불을 켠 다음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이라 하더라도 영과 육에 필요한 음식과 따뜻하게 해 줄 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정이라고 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음식과 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야 겠고 부모님이 가지신 간증에 의지하겠다는 뜻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지녀야 할 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 : 5—7)

앨마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읍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니라. 너희는 바로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아노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여러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음에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 (앨마5 : 45—46)

파괴된 가정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건물만의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금이 간 가정, 파괴된 가정을 정리하고 영원의 안식처가 될 기초를 놓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좋은 일이나 궂은 일로 마주 대할 때, 특히 일이 원만히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두 분이 함께 협력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그분들이 육십여년을 함께 생활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괴로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한 시간은 육십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빠져 나갈 문을 너무 넓게 열어 놓고 결혼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을 통해서 쉽게 이혼을 판결하는 법정으로 걸어 갑니다.

과도로 허가된, 현대인이 만끽하는 자유는 마치 나무가지가 뿌리를 상대적으로 요구하듯, 자제와 지속성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피로와 속도로 혼란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쉽게 갈등에 빠집니다. 긴장은 의지와 인내로 해소해야 합니다. 간증은 영의 양식을 가져다 주며 이것이 없을 때 인생은 전진하지 못한 채 파산하고 맙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있고 생명이 긴 삶의 영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의 복음은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간증을 가진 부모님들이 관리하는 가정에서 얻어 집니다.

간증이란 큰 활에 걸린 화살과 같다. 화살을 당기는 팔의 힘이 곧 화살의 힘이 된다. (후란시스 베이콘, 1561~1626 영국 정치가, 과학자, 저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 4 : 2)

나사렛에서 돌아오신 구세주는 그곳에 있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고로 많은 권능을 베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소망과 의욕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계시된 간증으로 인한 신념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념은 삶 그 자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조용한 여명을 따라 한밤에 동편으로의 발걸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신앙을 가져야 겠읍니다.

우리는 몰몬 개척자들이 가졌던 신앙과 신념과 확신을 거듭 새롭게 하고 다듬어야 겠읍니다. 횃불은 우리들 개개인의 손에 모두 쥐어져 있으며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로써 앞으로 갈 길을 밝힐 수가 있읍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이 신앙에서의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신앙으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의 결실이라도 일생을 사노라면 온통 지면을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길러줄 신앙의 체온과 권세를 계속하여 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테니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신앙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것을 찾게 한다. 신앙은 태양이 밤에는 밤을 위하여 숨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겨울 나무 가지에서 여름을 엿본다. 신앙은 또한 열매가 채 꽃이 피기도 전에 벌써 그 맛을 즐기고 잠잠한 종달새 알을 놓고 이미 종달새의 지저귐을 듣는다. 그리고 신앙은 폐허의 "신기루" 속에서 샘을 발견한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정의는 천국에 이르는 지도인 것이다. 주어진 은사를 소중히 하지 않고 던저 둘 때는 즉시 다시 앗기는 것이다. 영원한 진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반증되고 심연되는 것이다. (알프렛 테니슨, 1809~1892 영국 시인)

신앙은 신뢰를 동반하며 그 신념으로 목숨까지를 던질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의 간증은 이러한 신앙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전능자가 만물을 거룩하게 다스리심을 믿는다. 내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믿을 것이다." (1850~1894 스코틀랜드 작가)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을 한 달에 십만원씩 주기로 고용을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겁니다.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경험과 숙련에 의한 것이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직 신앙으로서만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나 종교는 신앙에 근거를 두고 더 높은 차원으로의 발전을 기합니다. 사람이 얼만큼 돈독한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거룩하신 이의 도움을 더 받기도 하고 또 덜받기도 합니다. 구세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주 전하셨읍니다.

기뻐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도다. 네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바라던 바가 성취되었으며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도다.

종교의 신앙으로 점철될 때 인생은 영광된 것이 되며 그 신앙의 빛이 쇠퇴할 때 삶의 고상하고 고매한 소망과 의미가 소멸됩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신앙을 가져서 그 신앙으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아브라함 링컨, 1809—1865, 미국 16대 대통령)

1월 1일이거나 12월 31일이거나 신앙이란 말은 훌륭한 귀착어가 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1850—1894, 스콧틀랜드 작가)

시는 신앙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피라밋의 모든 밑변이 정상의 한 점에 집중한다는 신앙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 1803—1882, 미국 철학가, 시인)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개발하여 획득한 모든 과학의 도구를 가지고도 옛날 바울이 로마로 여행할 때 가졌던 "그곳에서 내게 일어날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도행전 20 : 22) 그런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대하고 있읍니다. 바울의 꾸준한 신앙은 그의 간증으로 인하여 더욱 더 굳어졌읍니다.

상호 부조회 회원 모두는, 즉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는 모두 살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교회의 회원이며 새로운 이상으로 마음을 밝혀 모든 의심을 쫓아내야 한다는 간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물음에 대답한 베드로의 간증은 참으로 영감적인 것이었읍니다. "너는 내가 누구로 아느냐?" 고 물으셨을 때 그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하였읍니다. 이 간증은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최근까지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그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였고 스스로의 영을 영광되게 하였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요구로 인하여 몰몬 개척자들은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자의로 말일성도 곧 몰몬들과 뜻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육이나 피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된 계시로 얻은 베드로의 간증을 들으시고 흡족해 하셨으며 복음의 계획을 이해한 베드로가 사랑으로 그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리라는 확신을 가지셨읍니다. 우리도 의심의 언덕과 사악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신앙과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자 할 때 이를 이겨야 겠읍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의 간증이 어머니에 의하여 자주 전달될 때 그 간증을 발표하는 사람은 물론 그 간증을 듣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상호 부조회 모든 역원과 회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간증을 가진 까닭에 범 세계적인 단체인 상호 부조회가 사랑을 지표로 택한 것입니다.

프랭크 크레인의 말을 빌리면,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하는 사랑은 걸인의 모자에 동전을 던지고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빵을 전하며 벗은 자에게 옷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참된 사랑, 다른 이름의 사랑은 헐벗고 굶주리고 걸인이 된 그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외식하는 사랑은 "풍성의 잔치"를 연출하나 참사랑은 풍성함으로 가득하여 다시는 풍성을 원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 사랑은 있는대로의 현상을 받아드려 불행을 도우나 참 사랑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입법부나 의회로 뛴다.

외식하는 사랑은 쉬파리를 날려버리고 말지만 참 사랑은 쉬파리가 서식하는 분뇨통을 제거한다.

외식하는 사랑은 학질 환자에게 기니네를 배급하지만 참 사랑은 늪지와 웅덩이를 메워버린다.

외식하는 사랑은 군의관과 훈련된 간호원과 구급용차를 전선으로 보내지만 참사랑은 전쟁을 예방하고자 국제 우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외식하는 사랑은 사악한 행동을 거룩하신 이의 사업의 한 조각으로 간주하고 눈물로 조난자의 상처를 치유코자 하나 참사랑은 비록 그것이 관습이나 전통으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악은 악으로 정리하고 그것이 악마의 놀음임을 판단하여 과감하게 이에 응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원래 사람은 남의 도움이나 동정이나 원조를 요청하려 하지 않읍니다. 기회와 정당한 대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헨리 와드 워스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내가 겪은 얼마 안되는 세상의 경험이 과오를 노여움으로 대하지 말고 다만 슬픔으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내가 죄를 짓고 고통을 겪은 사람의 역사를 들처볼 때, 그리고 그가 겪어야 했던 갈등과 유혹을

생각할 때, 기쁨의 맥박과 소망과 두려움에 대한 열떤 불안, 소유하고 싶은 욕망, 친구들로부터의 이탈 등을 생각할 때, 방황하는 그 친구를 잡으려온 손에 떨어 지도록 버려두지 못할 것 같다.

교회에서 관리의 책임을 맡아 일을 하던가 사업의 관리자로 일하거나 법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일하거나 군대의 고위 장교로 부하를 다스리는 직책을 맡고 일하다 보면 때로는 재판도 해야하고 조사도 하고 우리와 유대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보좌나 동료가 피고인의 죄를 심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그린 환등 필림이 화면에 비쳐진 듯한 환상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읍니다. 그러한 경우 그러한 개개인의 과오를 지워버리지 못하므로 하여 삶에 오점을 남겨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체험하는지!

에스. 이. 카이서는 두 천사가 금으로 포장된 천국 도로를 빛을 발하며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읍니다. 두 천사가 길에서 마주치더니 들었던 하프를 떨어뜨리고 놀란 눈으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어! 도대체 어떻게 이곳엘 오셨오?"

베냐민 죤슨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날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심판하려 들겠읍니까?" 이태리의 시성 단테는 또 이렇게 말했읍니다. "오 인간이여 너희가 비판할 때에 특히 주의하라"

상호 부조회는 감상적인 사람, 극히 감정적인 사람들은 일군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겠읍니다. 확신과 관용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겠읍니다. 간증의 정신은 우리들로하여금 과오와 잘못을 덮어주는 관용을 갖도록 해주며 형재애를 키우게 해줍니다. 필립 부축스 지음 "관용"이란 책에 언급된 관용의 여섯원칙은 다음과 같읍니다.

첫째 순수한 무관심으로서의 관용; 우리는 우리의 관심밖의 일인 까닭에 너그럽게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정책상의 관용, 이것은 우리가 관용을 갖지 않으므로서 이익보다는 해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스스로 관용을 갖는 경우다.

셋째, 어쩔 수 없는 관용. 이것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말하자면 적의 기세가 온 들판을 장악했을 때의 어쩔 수 없는 관용이다.

넷째, 남을 존경하는 순수한 마음의 관용. 우리는 불의를 불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의를 간직한 사람을 존경하여 갖는 관용이다. 볼테어는 헬베티우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네가 말한 것에는 동의치 않는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너의 입장을 고수하룩 하겠다."

다섯째, 영적인 감동에 의한 관용.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못마땅 하더라도 영적인 동반을 느낄 때 관용의 마음을 갖는 수가 있다.

여섯째, 진리를 보는 안목이 넓어 졌을 때의 관용. 우리는 진리가 인간의 사고나 판단보다 크고 넓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관용을 갖는다.

처음 세가지는 평범한 방법이고 나중 세가지는 훌륭한 것이다.

부축스는 "참된 관용은 완전한 조화가운데 생활하고 진리와 인간을 사랑하는 참 사랑에 깃들어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이야기는 쉽지만 이러한 관용을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불모와 산아제한과 이혼과 파괴와 방종과 값싼 쾌락과 게으름과 절제가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 가정이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이며 성품과 개인의 인격이 훈련되는 가장 훌륭한 학교라고 하는 사실과 어머니는 인격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명심해야 겠읍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을 소유한 어머니는 가정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있으며 덕과 위엄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읍니다.

어머니는 높은 차원의 정신 세계를 여는 관문이며 어머니로 인하여 높은 영광의 세계의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자도 문전에서 자기 어머니를 불러 그 이름을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하였읍니다. 어머니들이 모두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계속하여 그의 구속의 사업에 협조한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읍니까?

멕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모성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과 창조의 덕을 가장 명확하게 알게 해 주는 품성입니다.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때는 사경을 헤매기도 하지만 창조주와 더불어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며 영원한 영혼에 육신을 부여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화가는 실물과 같은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시인은 전무 후무할 사상을 그려 놓으며 기술자는 풀 한 포기 없는 황무지를 녹지로 만들어 번창하는 마을로 꾸미기도 합니다. 과학자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며 이러한 것들을 서로 합하거나 분리하여 역사에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원한 율법의 뜻에 따라 불멸의 영을 이곳으로 데려와 창조의 첫 작업을 이행합니다. (복음의 이상 영문 656페이지)

복음의 간증을 계시로 얻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과 임무를 갖습니다.

지나 와이. 씨. 부라운 자매의 시를 이곳에 소개하여 여러분께 그뜻을 생활에서 실행하시도록 권고 합니다.

여인의 승영

시온의 딸이여
사람의 어머니여
그대가 받은 이 위대한 부름의 은사를
굳게 잡으라.

그리하여 이를 잃지말며
그것들이 값진 진주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되었음을 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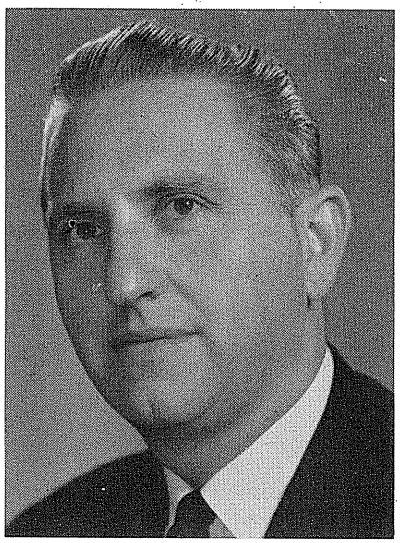
그대들의 처소가 옆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함을 모르느뇨,

그대의 동반자는 주님의 뜻으로
그대에게 허가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뇨

그대 승영된 여인이여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고를 내 세우라

그대는 여왕이며, 여군주
그대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그대를 여인으로 정하셨음을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나?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 구세주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가르치라(마태 28 : 19)"고 명하셨을 때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은 현실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이 희복된 이래로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부단한 노력이 투입되었던 것이다.

효과적인 전달에 부심한 나머지 교회에서는 교회 신문, 임프르브멘트 이라, 이 밖에도 많은 잡지를 내고 있으며 방송, 테레비죤 등의 전파 시설을 이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모든 사람과 마주하여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문제를 개인의 경우로 바꾸어 생각해 볼 때 그 책임은 보다 명백하여 진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치 못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보자. 다음 기사는 교회 신문에서 인용한 것인데 참고로 하면 재미있다.

> **소년 종신형 받다**……라스 베가스(합동 통신) 금년 16세의 소년은 세 은행원의 살인 사건에 관련하여 내려진 형량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종신 징역을 언도 받았다.
>
> 그는 은행 지배인과 금전 출납원 2명을 사살한 죄로 기소되었다. 죽은 세 은행원은 라스베가스 소재의 은행의 3만 5천 달라 도난시에 변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무거운 형을 확정받은 장본인은 8세 때 침례를 받아 회원이 된 소년이었다. 주일학교와 초등협회에 참석하였는가 하면 아론신권 소유자였다. 살인자에 관한 기사를 읽은 감독은 슬픈 어조로 말했다.

"우린 어떤 점에서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인가?" 의사 소통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말하고 듣는 것 이상이다. 요즈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의사 소통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은 "나눈다"는 의미의 라틴어인 "Communico"이다. 그러므로 의사 소통이란 곧 "어떤 것의 일부를 주거나 나누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의사 소통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거나 설득시키는 기술"이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다. 의사 소통의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 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우리들은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겨 이를 배워 자기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막강의 힘에 대치키 위하여 교회 회원에게 복음의 원리에 좇아 생활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역시 의사 소통의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인간을 그처럼 사랑하고 이해하셨던 주님까지도 이 의사 소통에 있어서 고충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위안이 되기도 하겠다. 배에 타신 예수가 해변가에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다. 말씀을 마치자 제자는 의아한듯이 물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마태 13 : 10—11)라고 대답하셨던 것이다.

이어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귀는 둔하고 눈은 닫혀 잘 듣지 못하고 또한 보지도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마태 13 : 16)고 설명하셨다. 계속하여 설교하시면서도 역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이다.

아마도 당황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시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비유의 말씀은 하늘의 비밀을 이해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가 떠나가자 제자들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마태 13 : 36)라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하여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처음 시도에 실패하여 소기의 의사 소통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하여 지나치게 의기 소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에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효과적인 동기가 아닌가 한다. 지도자는 우선 자신을 철저히 교육하며 열의를 갖고 자기가 가르치고자(의사 소통하고자) 하는 바에 완전히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주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상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동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요소이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에는 명확, 간단, 확인의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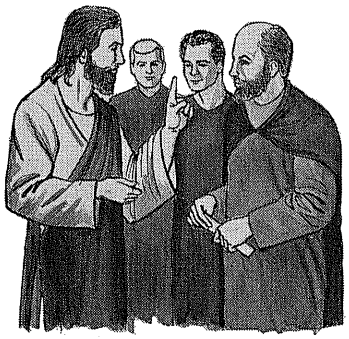
1. 자신의 전달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명확성의 제일 단계는 선명한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이 의사 소통을 통하여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목적이 자신에게 조차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은 채로 듣는 사람을 이해시켜 행동의 동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명확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는 그림 사용이 있다. 말은 그 자체가 듣는 사람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보충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의사 전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림은 비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을 함께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신 경우가 많다. 그분이 얼마나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셨으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마가 4 : 34)는 말이 생겼을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를 신앙과 지혜에 따라 종교적인 진리를 보다 정확하게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배우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비유는 흥미있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그 속에는 배울 가치가 있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늘 왕국의 비밀과 신비를 포함한 사실까지도 전해주는 구실을 하였다. 그러므로 비유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이다. 아주 평범한 것에서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인 것이다.

비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자주 사용하신 단순한 비교형식이 있다. 즉 "하나를 처



없앰이 나라가 뒤흔들리고, 불신앙에 빠져 멸망되는 일보다 나으리라." (니파이일서 4 : 13)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 4 : 19)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 5 : 16)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 7 : 20)

이 밖에도 비근한 이야기는 명확성에 좋은 수단이 된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주님께서도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다. 과부가 낸 적은 돈의 뜻을 설명하면서 참다운 의미에서 남에게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남기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누가 21 : 3—4)

실제로 산 사람이 관련된 실화는 명확하게 전하는데 큰 매개체가 된다. 말과 행동으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는 시범이 있다. 이 방법은 특히 기계 분야에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려 할 때에는 효과적이다. 이 시범 방법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시청각 교재의 합리적인 사용으로 운동 기술 또는 지부 신권 집행 위원회의 사회 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에는 누구나 인정할 타당성이 있다. 예를들면 도움을 청하는 방법 등이 있겠다. 반대 설명도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이 된다.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를 직접 듣거나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여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말을 하게 한다.

2. 전하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한다. 간단하게라는 말은 짧은 말로 보다 큰 의미를 표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어떤 주제를 놓고 의사 소통을 하는 시간은 주제의 난해성이나 듣는 사람의 사전 준비 지식 등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러나 말 하나, 문장 하나, 절 하나가 의미에 가득차고 주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경우 의사 소통은 원활하게 된다.

내용을 간단하게 하는 비결은 다음과 같다.

가) 전달 가치가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공부하고 연구한다.

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문장 형태나 정도에 개의치 말고 종이에 적어둔다.

다)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열거한다. 요점, 이유, 예, 요점 등의 공식을 사용하여 순서를 정하는 사람도 있다.

라) 주제 설명과는 동떨어진 불경한 생각, 설명, 농담은 절대 금물이다. 주의가 잘 집중되지 않으면 그 내용이 경건하지는 않은 줄은 알면서도 사용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게 마련이다.

마) 일단 위와 같은 조직 과정이 끝나면 될 수 있는대로 문장을 꼭 필요하고 중요한 단어 몇으로 줄인다.

바) 마지막으로 준비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 내용을 잘 익힌다.

3. 가르친 것이 잘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사용한다든가 개념 설명을 시원스럽게 못했다든가 단어를 잘못 쓰는 경우 오해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확인, 보충, 시정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노동 쟁의 중재자는 노동자측과 고용주측의 열띤 논쟁을 무마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착안하였다. 노동자측 대표는 고용자측의 견해를 듣고 이를 상대방이 만족할만 하다고 수락할 때까지는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며 이 단계가 끝나면 반대 과정을 거친다는 규칙을 세웠던 것이다.

베냐민 왕과 그의 백성이 보여준 예를 따르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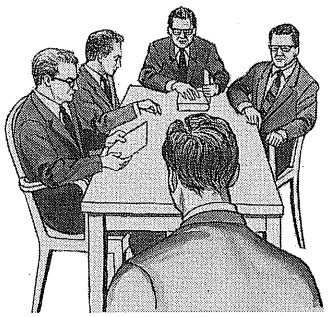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가 한 말을 믿는지를 알아보려 백성들에게로 사람을 보내니,

백성들이 모두 한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우리는 참으로 왕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모두 참되고 진실함을 믿나이다. 주의 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 (모사이야서 5 : 1~2)

주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의사 전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충고를 주셨다. 그는 또한 효과적인 소통 방법으로 영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하셨다.

참으로 고귀한 영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개방적이어야 하며 정직해야 되겠다. 거짓 철학이나 속임수는 하늘 왕국에 적합치 않다. 바울 사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에베소서 4 : 15) 말하여 서로의 의사가 통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말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감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아울러 우리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전하여야 한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교성 42, 14)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를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내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말하는 사람 또는 전달자로서는 자신이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영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주님은 아론을 대변자로 주셨다. 인도의 책임은 아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도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모세에게 주셨다. (출애굽기 4 : 10)

바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기 위하여"는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계속하여 명확성은 만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즉 누가영향을 받아 움직이겠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 : 3—9참조)

의사 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적당한 시기와 분위기 안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신뢰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는 것이다. 이 기술에 성령이 같이할 때 주님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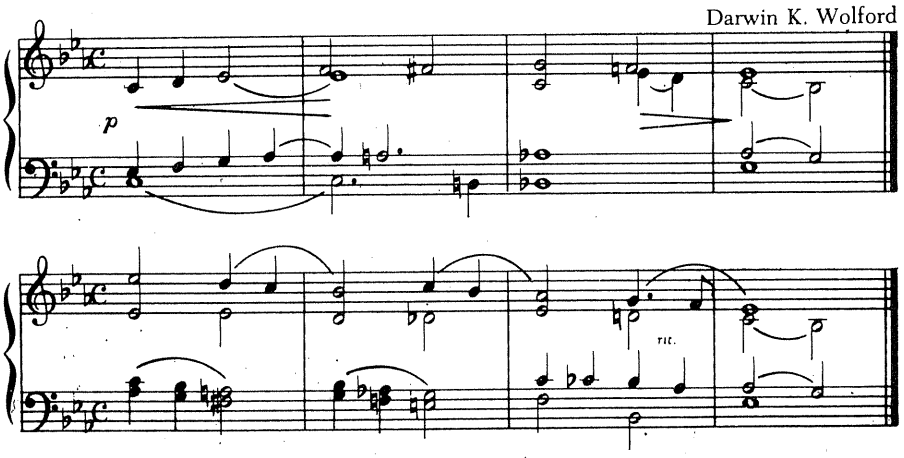
새로 침례를 받은 회원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선교사의 예는 효과적인 의사 소통이 이루어 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느 봄 날 진리를 갈구하던 겸손한 소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어 나타난 영광의 시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때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과 열심히 간구하는 가운데 주어진 답변, 그리고 이 소년이 치룬 고귀한 희생 등은 결과적으로 의사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우리도 이같이 훌륭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있으려면 위에 열거한 아름다운 예를 생각과 행동에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

4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4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장년 주일학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유년 주일학교

요한복음 14장 15절

4월 주일학교 연습 찬송

장년 주일학교

114장 예수 이름 찬송하네

유년 주일학교

43장 감사의 노래

4월 주일학교 성구 암송

야 고 보 반

요한 계시록 20장 12절

복음의 멧세지반

야곱서 2장 19, 20절

■ 선교부장 멧세지 ■

영생으로의 우정

선교부장 **서 현 보**

● 1969년 한해 동안 한국에서는 550명의 형제와 자매가 침례를 받고 여러 지부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읍니다. 1970년의 첫번째 달인 1월에는 64명이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으며 그리고 몇 개 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등록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물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회원이 되신 분들은 이제 전적으로 지금까지의 인생길과는 다른 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고 우정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부와 지부의 역원들인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읍니까? 교사인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동료회원인 여러분은 이들 새 회원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교회와 지방부 그리고 지부의 한부분이 되었다는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무슨 일을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잠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큰 책임을 지니고 있읍니다. 이들 새 회원들 중의 몇몇이 지금부터 1년, 5년 혹은 10년 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는 우리 중의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입하던 때를 기억코 있읍니까? 그때 친절히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이끌어 준 사람이 있었읍니까? 다른 모든 회원들 처럼 참된 말일성도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두가지 면 즉 (1) 복음의 교리와 원리 그리고 (2) 예배방식을 따르려고 개종하였던 것입니다. 강한 신앙을 지닌 회원을 가지려면 "우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정"을 나누게 되면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을 완전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활동에 참여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새로 개종한 모든 회원이 복음이 그들 생활에 중요하고 뜻 깊은 그리고 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되도록 교회 조직, 절차 및 교리에 대하여 적절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은 새로 개종한 회원들에게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선교사가 사람들을 찾아내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것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며 그러므로서 더욱더 새로운 회원이 다달이 지부에 더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성장에 대처하고 믿음이 강한 회원들을 길러 내기 위하여, 지부장과 그를 보좌 하는 모든 역원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우정을 살릴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 봅니다.

1) 지부 역원들은 복음 선교사가 적절하다고 느낄 때는 구도자의 집을 같이 방문하도록 합니다.

2) 될 수 있는한 많은 역원과 회원들이 매번 침례식에 참석합니다.

3) 새로히 침례를 받은 회원들을 지부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확인이 끝나면 성찬식에서 전회원들에게 그의 회원됨은 환영합니다.

4) 즉시 가정 복음교육 교사를 임명하여 새로운 회원과 함께 일하고 우정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정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교육 교사는 자기가 맡은 사람 혹은 그 가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며 그리고 지부장이 항상 그것을 알고 있겠금 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교육 교사는 지부장에게 각 맡은 사람의 상세한 서면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새 회원을 침례한 선교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침례를 받은 후의 공과" 10가지를 그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읍니다. 가정 복음교육 교사나 지부의 지도자들은 이 일을 도와 주어야 하고 또 이 공과를 할 때 그 자리에 동석할 수도 있읍니다.

6) 새 회원들을 위해 특별한 반을 마련하십시요. 그것은 주일학교 공과의 하나로 만들어도 좋고 그들만 모여서 교회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도록 특별히 주일 어느 저녁을 택하여 반을 마련 할 수도 있읍니다. 이 때의 공과로는 야곱반 공과로 쓰는 "말일성도란"공과가 좋읍니다. 새 회원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그 구룹에 속해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여럿이 구룹으로 그를 방문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7) 새 회원들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환영의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조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를 하도록 합니다.

8) 반드시 모든 모임에서는 새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환영하도록 합니다. 회원들은 그들과 사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집에 그들을 초청하도록 하십시요.

9) 합당한 연령에 이른 형제들에게는 반드시 아론신권을 받겠금 하고 새로 개종한 회원들의 능력에 알맞는 교회의 직분을 빠른 시일내에 맡아 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직분이 적절하다면 우정을 나누는 일은 온전히 잘 이루어 질 것입니다.

10) 항상 관심을 가지십시요.

위에 말할 것이 회원들의 단합을 확실히 해주는 10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우리가 이들 10가지를 택하여 실천한다면 우리들은 많은 회원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한 우정을 나누는 일이 아마도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 같읍니다. 경전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읍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처음 몇개월 또는 처음 몇해입니다. 우리는 64명이 개종했다는 1월달 기록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1월 혹은 그 다음 1월에 똑같은 수인 64명이 개종했다는 기록을 본다면 그때도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할 것입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우정을 나누는 일에서 자기 임무를 다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도왔고 그러므로서 그들을 영생에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노력을 배가할 것과 각 지부에서는 좋은 우정 프로그램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

주 예수의 기쁨

남부 지방부장 **배 영 천**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 15 : 11)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 16 : 22)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 17 : 13)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이서 2 : 25)

인류는 행복 (기쁨)을 얻기 위하여 현세에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 넘쳐 흐르는 말씀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확신하는 말씀이며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목적에 관하여 지금까지 쓰여진 말씀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가르치신 가운데서 나타났으며 또한 그의 생활 태도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근본적인 중요한 인생관입니다.

기쁨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토대이며 이 토대 위에 일평생이 구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에 넘친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예수의 탄생이란 "기쁨"으로서 쓰기 시작되어 할렐루야 합창을 부르는 수많은 군중을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끝마치고 있읍니다.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지 또는 타락의 구덩이에 있던지간에 성서를 읽는 가운데 항상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넘친 책자 속에는, 또한 이 책자가 가르치는 기쁜 신앙 속에는 인류의 영감이 될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인격이 숨어 있읍니다. 신약성서 속에 예수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읍니다. 또한 예수가 웃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종종 눈물을 흘렸는데 결코 웃음을 짓지 않으셨다고 추리하여도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읍니다.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라는 말씀은 예수 자신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지극히도 친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기쁨"을 가지고 축복하셨읍니다. 예수는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슬픔을 알고 계셨읍니다. 예술가도 이와 같이 그리며 작가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도 이와 같이 예수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예수의 일생을 관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같은 관찰 방법으로 보면 수많은 비극과 고통이 발견됩니다. 예수는 보통의 인간이 고민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과 번민을 체험하셨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민 속에는 깊은 침묵과 기쁨이 숨겨져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웃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가져왔으며 또한 하나의 위대한 사실을 위하여 희생이 되셨고 자기를 부정하여 사심을 떠나 정의를 달성하셨고 또한 승리의 생활을 이룩함으로써 가져온 것입니다. 즉 깊고, 확고한 신앙과 한 없는 희망이 가져온 기쁨이었읍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기쁨은 오락(쾌락)보다 상위이며 보다 높은 차원에서 생겨진 것입니다. 기쁨에는 부를 소유하는 것, 건강과 자유를 얻는 것, 또한 지시, 독재, 고역에서 해방되는 데에서 얻는 만족 이상의 큰 것도 있읍니다.

기쁨과 쾌락은 상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며 눈에 뜨이지 않을 정도로 변화를 하고 있으며 큰 의미에서는 별 차이가 없읍니다. 기쁨에는 인간에게 부여될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음을 받은 경험을 표시하며 외부에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기쁨은 마음 속 깊은 샘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약속된 "완전한 기쁨"은 죽음과 부활을 초월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단순한 쾌락은 잠시동안의 허무한 것이며 회개를 요구함이 많읍니다. 진실한 기쁨은 사람과 또한 환경이 이루는대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쁨이나 슬픔은 같이 깊은 곳에서 생기는 것이며, 양자는 다 엷은 것은 아닙니다. 슬픔을 모르고서 기쁨을 알길 없으며 기쁨 모르고서는 슬픔을 모르는고로 양자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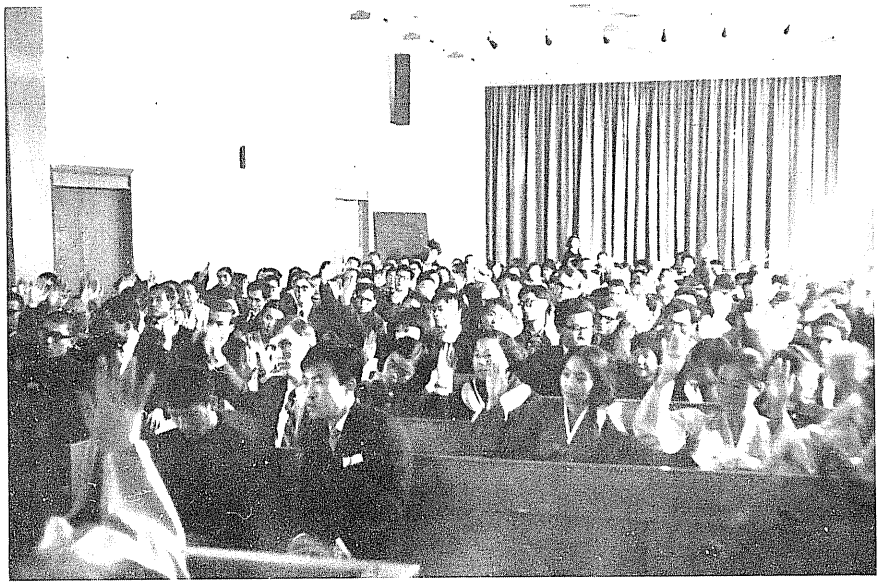
쾌락을 요구하는 세상은 죄많고 불행하고 그리고 장래의 판단을 불허하는 세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쁨을 요구하는 세상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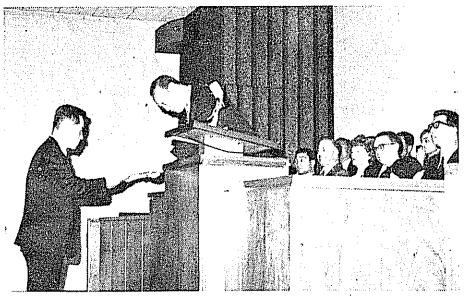
인간의 성질을 조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의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쾌락을 희구하느냐를 조사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실로 신앙이 돈독하신 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행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의 하나이며 종족, 국적, 연령,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다음과 같은분이 침례 받으셨읍니다

월일	이 름	나이	성별	지 부
12/6	박 유 순	24	여	신 촌
〃	양 명 희	19	여	삼 청
〃	곽 정 구	16	남	삼 청
〃	박 찬 구	16	남	삼 청
〃	이 강 훈	15	남	삼 청
〃	이 철 선	25	남	인 천
〃	최 정 자	17	여	인 천
〃	김 영 환	18	남	인 천
〃	임 경 국	17	남	인 천
〃	송 후 홍	14	남	청 운
〃	김 호 석	23	남	청 운
〃	장 혜 진	8	여	청 운
〃	홍 성 암	27	남	영등포
〃	홍 선 미	13	여	영등포
〃	서 진 상	21	여	영등포
〃	서 정 욱	14	남	영등포
〃	허 병 석	14	남	영등포
〃	허 충 석	11	남	영등포
〃	오 화 숙	17	여	영등포
〃	김 명 순	16	여	부 산
〃	이 연 실	17	여	부 산
〃	박 선 혜	23	여	부 산
〃	박 진 숙	18	여	부 산
〃	박 용 숙	15	여	부 산
〃	차 정 연	17	여	부 산
〃	남 국 현	16	남	부 산
〃	조 갑 용	15	남	동 구
〃	우 수 계	14	여	동 구
〃	최 정 희	13	여	동 구
〃	조 문 환	20	남	대 전
〃	이 중 영	21	남	대 전
12/12	조 중 현	20	남	춘 천
〃	염 필 은	20	여	춘 천
12/13	이 혜 옥	18	여	마 산
〃	이 찬 옥	25	남	마 산
12/15	송 규 순	24	여	전 주
〃	이 연 연	13	여	전 주
〃	임 병 갑	17	남	전 주
〃	송 영 홍	16	남	전 주
12/20	이 군 혜	25	여	대 전
〃	이 계 복	16	여	대 전
〃	강 상 길	27	남	대 전
〃	이 영 희	17	여	광 주
〃	김 정 심	17	여	광 주
〃	김 길 중	17	남	광 주
〃	김 찬 우	14	남	광 주
〃	강 재 구	17	남	광 주
〃	양 석 호	20	남	춘 천
〃	권 문 조	19	남	인 천
〃	이 승 미	29	여	동대문
〃	신 순 영	15	여	서 부
〃	박 세 경	15	여	서 부
12/28	이 장 순	16	여	삼 청
〃	김 미 숙	15	여	삼 청
12/31	강 용 순	21	남	마 산
〃	윤 화 중	38	남	목 포
1/3	손 정 국	15	남	동 부
1/7	차 혜 옥	17	여	춘 천
1/10	전 병 호	56	남	영등포
〃	차 정 님	41	여	영등포
〃	전 원 배	14	남	영등포
〃	전 홍 배	12	남	영등포
〃	전 대 배	8	남	영등포
〃	박 옥 임	13	여	동 구
〃	이 인 기	13	여	동 구
〃	우 양 옥	15	여	부 산
〃	우 양 주	12	여	부 산
〃	이 종 순	51	남	부 산
〃	이 권 해 영	18	남	부 산
〃	이 우 건	17	남	부 산
〃	차 광 희	17	여	동 래
〃	정 순 화	17	여	동 래
〃	윤 태 관	35	남	동 래
〃	이 필 은	20	여	부 산
〃	조 규 종	22	남	광 주
〃	조 수 복	15	여	광 주
〃	이 중 분	21	여	대 구
〃	임 난 희	25	여	대 구
〃	장 태 금	21	여	대 구
〃	손 성 태	22	남	대 구
1/11	박 옥 점	22	여	인 천
〃	이 풍 호	22	남	인 천
〃	정 선 화	14	여	인 천
〃	안 명 순	20	여	청 운
〃	한 옥	45	여	청 운
〃	최 재 홍	24	남	삼 청
〃	박 화 종	21	남	신 촌
1/12	이 오영규	30	남	마 산
1/17	김 영 권	22	남	동대문
〃	차 건 희	22	남	동대문
〃	진 조 자 희	25	여	동대문
〃	윤 준 자	24	여	목 포
〃	백 영 균	25	여	목 포
1/19	김 동 균	18	남	전 주
〃	배 남 희	22	여	전 주
〃	김 동 조	17	남	전 주
〃	배 남 기	21	여	전 주
1/20	김 명 숙	20	여	광 주
〃	김 용 진	18	남	광 주
1/31	김 숙 희	19	여	동 부
〃	김 주 현	19	여	동 부
〃	이 백 선	16	남	동 부
〃	김 욱	○	남	영등포
〃	강 현 숙	20	여	영등포
〃	강 현 태	19	여	영등포
〃	이 형 삼	27	남	영등포
〃	최 영 만	55	남	영등포
〃	최 준 영	27	남	영등포
〃	이 제 숙	19	여	청 운
〃	전 영 배	21	남	청 운
〃	정 수 자	8	여	청 운
〃	정 윤 정	33	남	서 부
〃	김 민 섭	16	남	서 부
〃	십 명 숙	21	여	동 구
〃	곽 희 우	20	남	동 구
〃	최 진 영	36	남	마 산
〃	김 준 희	22	여	목 포
〃	박 공 자	25	여	목 포
〃	박 성 진	34	남	대 전
〃	김 순 자	48	여	대 전
〃	박 철 호	45	남	대 전
〃	송 만 영	19	남	대 전
2/7	전 수 복	27	남	목 포
〃	김 명 자	20	여	목 포
2/13	임 영 희	15	여	춘 천
〃	이 재 섭	52	남	춘 천
〃	이 향 숙	13	여	춘 천
2/25	최 삼 동	57	남	전 주
〃	최 광 일	30	남	전 주
〃	정 순 희	48	여	전 주
2/27	정 정 숙	34	여	광 주
〃	정 은	10	여	광 주
〃	정 영 태	12	남	광 주
〃	장 원 섭	20	남	광 주
〃	김 영 숙	16	여	광 주
2/28	이 재 용	16	남	청 운
〃	김 대 겸	22	남	청 운
〃	김 미 자	17	여	청 운
〃	황 우 인	20	여	청 운
〃	이 창 순	17	여	청 운
〃	이 재 순	19	남	동 부
〃	왕 연 호	17	남	동 부
〃	임 순 자	17	여	동 부
〃	전 광 훈	17	남	동 부
〃	김 상 숙	17	여	동 부
〃	김 수	18	남	동 부
〃	박 문 수	18	남	녹 번
〃	김 원 태	16	남	녹 번
〃	김 희 경	14	여	녹 번
〃	김 주 일	23	남	삼 청
〃	이 병 순	21	여	삼 청
〃	유 재 현	24	남	영등포
〃	이 부 영	21	남	영등포
〃	김 애 숙	14	여	영등포
〃	조 기 우	19	남	성 북
〃	여 승 록	17	남	성 북
〃	강 금 수	44	여	성 북
〃	정 장 한	41	여	성 북
〃	이 순 호	42	남	인 천
〃	임 윤 님	33	여	인 천
〃	이 운 미	8	여	인 천
〃	최 진 남	22	남	인 천
〃	김 현 분	37	여	서 부
〃	안 경 숙	21	여	서 부
〃	안 영 숙	21	여	서 부
〃	안 희 운	46	남	서 부
〃	안 재 균	12	남	서 부
〃	유 효 숙	15	여	서 부
〃	강 희 자	16	여	동대문
〃	강 경 자	14	여	동대문
〃	이 말 태	32	여	마 산
〃	김 인 혜	17	여	마 산
〃	김 진 현	47	남	목 포
〃	김 영 춘	14	남	목 포
〃	김 윤 미	12	여	목 포
〃	김 윤 경	11	여	목 포
〃	최 갑 균	55	남	목 포
〃	배 상 난	41	여	목 포
〃	차 종 미	18	여	목 포
〃	차 종 균	12	여	목 포
〃	장 영 숙	15	여	목 포
〃	임 금 희	17	여	목 포
			이상	18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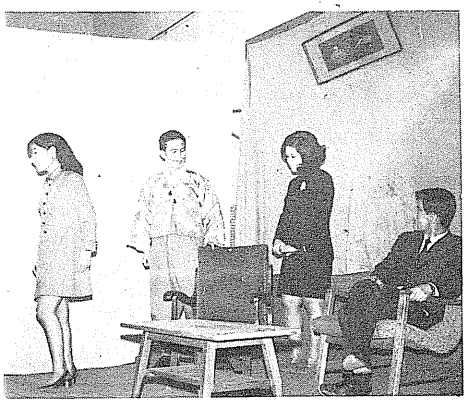
중앙지방부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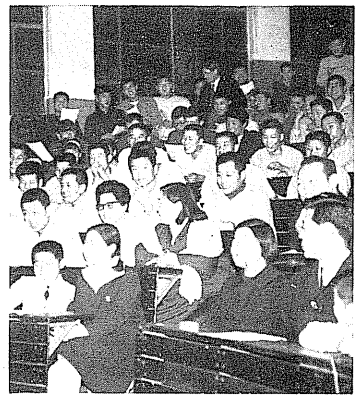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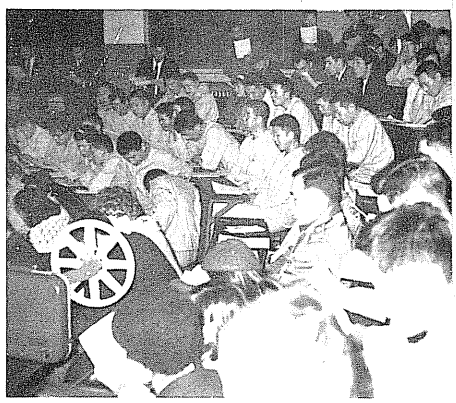
1970년도 제1차 중앙지방부 대회가 지난 2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부지부에서 있었다. 신권회 역원모임으로 시작된 토요일에 이어 주일 10시부터 있었던 제1총회에서 관례대로 대관장단을 비롯한 총관리 역원과 선교부, 지방부 역원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가 있었다. 오후 2시부터 있었던 성찬식을 겸한 제2총회에서 선교부장은 " 사람의 영을 구한 즐거움에 도취해 있는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이 우리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서로의 관심 속에서 생활하자"고 말씀하셨다. 한편 이번 지방대회를 통해서 9명의 형제가 장로 신권을 받았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 강우(동대), 윤 봉준(영), 김 삼현(영), 김 산(녹), 구 응회(녹), 황 종원(녹), 박 정욱(신), 이 용상(인), 서 희철(삼).

남부지방부 대회

올해에 첫번째이며 1969~1970년도의 ¾분기 남부 지방 대회가 지난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지부에서 있었다. 부산, 대구, 마산 지역의 성도들은 총관리 역원에 대한 지지에 이어 지방부 행정서기에 방 춘성 형제, 청남 상향회장에 이 두태 형제, 유년부장에 서 혜숙 자매를 새로이 지지하였다. 저녁에 있었던 성찬식을 겸한 제2총회에서는 동구의 박 묘자 자매와 서울의 김 산 형제가 초청되어 훌륭한 말씀을 해 주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신 의휴(동구), 안 재석(동구), 정 성해(부산), 김 영우(부산)형제들의 장로 성임도 같이 있었다.

사진 : 상단의 좌우 사진은 남북지방부. 하단 좌우의 사진은 중앙 지방부의 대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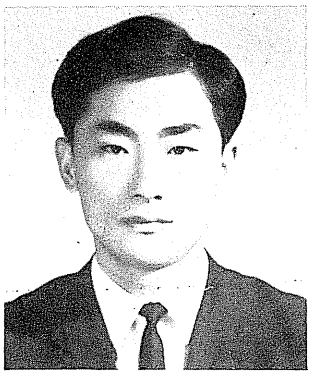


삼청지부 두번째 위문 공연

지난 1월 24, 25일 지부대회를 가진 바 있는 삼청지부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의 수도 육군 병원 장병 위문의 밤을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부터 수도 육군 병원 강당에서 가졌다. "몰몬의 밤"이라 이름하여 합창, 중창, 독창, 돌림노래와 섹스피어 원작 "말광량이 길들이기"를 고 원영 형제의 연출로 준비한 이들은 순서의 마지막으로 선교영화 "행복의 추구"를 상영하여 조국의 국토방위를 위한 대열에 참여 못하는 안타까움을 달래주었다. 지방부장, 선교부장의 말씀과 함께 진행된 이날의 위문 공연에는 300개의 위문대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즐거운 모임이었다.

사진 : 위문 공연에서의 활동.



김 차봉 형제 서부지부장으로

지난 3월 1일 서부지부 지부장으로 김 차봉 형제가 지지되었다. 성찬식에서 지방부장의 안내로 지지된 김 지부장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형제애를 다져 갖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선으로 개척하는 개척자로서의 사명감을 갖자고 했었다. 1961년에 침례를 받은 그는 부인 김 휘나 자매와의 사이에 공주 하나를 두고있다. 신명 물산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있는 그는 그의 제1보좌에 김 명종 형제, 제2보좌에 송 평종 형제, 서기에 조 규영 형제를 임명하였다.

성북지부 빙상모임 갖다

성북지부 상향회 주최의 빙상모임이 지난 1월 17일 10시 영북구 소재 영신 스케이트장에서 있었다. 26명의 형제자매가 참석하여 300m, 600m, 1,000m등의 경기를 가진 이날 상향회장 이 봉우 형제는 건전한 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을 이야기했었다.

성도의 벗
1970년 4월 1일 발행(매월 1회 1일 발행)
1967년 10월 14일 공보부등록 라-1932
값 50원

진리의 말씀

자신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리차드 엘. 이반스

때로는 삶이 안겨주는 좌절감이나 초조함으로 갈피를 못잡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평온과 안정의 필수적인 요건인 목적 의식과 화평을 잃고는 불안, 절망, 불만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좌절감의 심연에 빠져있는 자신이, 세월은 무섭게 빨리 지나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무진 애를 쓰나 해야할 바를 이루지 못함은 발견할 때, 기력을 다하여 만회하고 회복하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적으로 고조된 상태가 찾아오는가 하면 아주 저도한 상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못한 것이 많은데도 이미 한 것에 공연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좌절감은 극에 달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스스로 노력하는 가운데, 인생의 무한하고 끝없는 가능성을 믿는 신앙으로 평온과 안정, 인내, 명상, 목적의 재평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함께 우리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과거를 평가할 때, 자신이 처한 현재를 이용하는 태도를 검토할 때 회개, 이해, 자비, 용서를 아울러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힘을 가장 오래 계속되는 값진 것을 찾는 일에 돌려야만 합니다. 인생을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증오하는 태도는, 물론 나쁜 사람을 증오하는 태도까지 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아끼며 이웃에 자비심을 품으며 판단에 보다 솔직하며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이 다 영원함을 알며 그분의 율법, 능력, 목적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함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앙과 화평, 회개, 용서, 계명에의 순종, 건강의 법과 행복의 율법, 아니 행복의 율법에 좇는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 키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매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읍니다.